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

2019.12.11.

제 출 문

본 연구물을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짓거리연구소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최선영 짓거리연구소 대표

공동연구원 강유선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낮수업 교사

공동연구원 권은영 Oset 프로젝트 연출

공동연구원 성연주 서울대 사회학 박사과정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강정아

고륜호

김영미

김예원

김정주

김제형

라도삼

오하나

우에타 지로

이혜령

임성현

좌동엽

최미나

최혜자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필요성	2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생활예술

1.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의 배경 및 역사	31
1) 개념의 역사	31
2) 개념의 구체적 내용	34
2. 생활예술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38
3.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40
1)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배경	40
2)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유형 및 종류	41

제3장. 장애인과 생활예술

1. 장애인의 문화향수	49
1) 장애와 장애인	49
2)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개념	51
3)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선행연구	53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향수 실태 비교	57
2. 장애인의 삶과 생활예술	60
1) 장애인의 삶과 기존 생활예술 개념과의 연결 가능성	60

3. 장애인과 생활예술 관련 접근성	67
1) 정보 접근성	67
2) 시설 접근성	68
3) 경험 접근성	69

제4장.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의 참여

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의 참여 접근성 현황	75
1) 장애인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75
2)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	78
3) 생활예술 활동의 장애인 참여 현황: 생활예술매개자(FA) 설문 결과	87
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애인 참여 접근성 개선 방안	104
1) 사업의 단계적 개선 필요	104
2) FA 역할 및 역량 개발	107

제5장. 참고사례

1. 국내사례	111
1) 인포숍카페별꼴	111
2) 차별없는가게	114
2. 해외사례 : 일본	119
1) 와라코 미술관	119
2) 코코룸	122
3. 해외사례 : 영국	127
1) 웨이프아츠(Shape Arts)	127
4. 해외사례 : 호주	130
5. 해외사례 : 미국	133

제6장. 장애인의 생활예술 관련 FA 역량 개발방안

1. 방향성	137
1) 퍼실리테이팅 방식의 논의 기회 마련	137
2) 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의 사업 참여 가능성 모색	137
3) 접근성 중심의 사고 전환	137
4) 장애를 포괄한 문화다양성 및 인권 중심적 접근	137
2. 프로그램	138
1) 리서치형	138
2) 시뮬레이션 기반 강의형	139
3) 워크숍형	140
4) 학습모임형	144

제7장. 정책적 제언

1. 생활문화 개념으로의 접근	149
2. 장애인의 참여가능성을 전제한 생활문화의 개념 확장	149
3. 생활문화 사업 내 단계적 사업 개선	150
4. FA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체적 논의 과정 설계	151
5.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넘어 문화다양성 실현으로	152

참고문헌	154
------	-----

부록

01 2019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체크리스트	159
02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 조사	167
03 정보 접근성 관련 일본 자료	172

표 목차

<표1-1> 전문가 및 활동가 인터뷰 내용	25
<표1-2> FA 대상 FGI 내용	26
<표2-1> 생활예술 개념 정의	34
<표2-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목표	40
<표2-3> 생활예술매개자 구성도	43
<표2-4> 일상예술활성화 사업 구조	45
<표3-1> 장애인복지법 상의 유형과 분류	49
<표3-2> 장애예술인의 정의	52
<표3-3> 장애 예술 선행연구 목록	53
<표3-4> 생활예술의 지향점	60
<표4-1>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체크리스트 내용 구분	79
<표4-2> 장애인 시설 접근가능/접근 부분가능 생활문화지원센터	80
<표4-3>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 요약	84
<표4-4>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 조사 온라인 설문 내용 구분	88
<표4-5> 응답자 경력 구분	89
<표4-6> 응답자 역할 구분	89
<표4-7> 응답자의 사업 외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종류	90
<표4-8> 심층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91
<표4-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개선 사항	97
<표4-10>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의향	98
<표4-11> 장애인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99
<표4-12> 정보 접근성의 단계적 개선 방안	104
<표4-13> 시설 접근성의 단계적 개선 방안	105
<표4-14> 경험 접근성의 단계적 개선 방안	106
<표4-15> FA 역량 강화 워크숍	108

<표5-1> 장애인 예술가 대상 프로그램	127
<표5-2> 문화예술 기관 대상 프로그램	128
<표6-1> 프로그램 유형	138
<표6-2> ‘다름의 모양’ 워크숍 세부안	141
<표7-1> 단계별 사업 개선안	150

그림 목차

<그림3-1>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실태	57
<그림3-2>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정보 습득 경로	58
<그림3-3>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시 중요한 기준	59
<그림3-4> “천만시민 아티스타가 세계시민 생활예술가되” Action Plan	62
<그림3-5> 장애인의 생활예술 논의점	65
<그림3-6> 장애인, 비장애인 관점/입장에서의 생활문화, 예술의 관점	65
<그림4-1>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참여 형태	76
<그림4-2> 응답자의 사업 외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경험	90
<그림4-3> 사업 내 장애인의 활동 참여 목적 경험	92
<그림4-4> 사업 내 장애인의 활동 참여 형태	93
<그림4-5> 사업 내 장애인 참여 활동 종류	93
<그림4-6> 장애인의 사업 참여 저조 원인	97
<그림5-1> DIY종이만들기 워크숍	112
<그림5-2> 진라이브러리	112
<그림5-3> 미디어아티스트 듀오 ‘다이애나밴드’ 와 함께 한 사운드진 워크숍	113
<그림5-4> 차별없는가게 약속문과 접근성 아이콘	115
<그림5-5> 차별없는가게 AAC카페메뉴판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 소통> 제작	116
<그림5-6> 이동식경사로를 설치한 차별없는가게	116
<그림5-7> 차별없는가게 점자메뉴판과 모뉴먼트	117
<그림5-8> 고치의 자연재료로 쉽게 소리나는 악기를 만들어 연주해 보는 워크숍	120
<그림5-9> <플립애니메이션x댄스x음악워크숍>	121
<그림5-10>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124
<그림5-11>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124
<그림5-12> 호주 장애인/비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130

<그림5-13> The Tutti Kids and Youth 2017 Showcase	131
<그림5-14> Rebus Theatre 프로그램 장면	132

제1장. 연구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가. 비장애인 중심의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안에서 장애인의 참여비율이 저조함을 확인.
-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의미를 전제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권적, 문화적,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함.
- 현재의 사업 참여자와 참여방식, 사업 실행방식 등을 토대로 기존에 생활문화, 생활 예술에서 전제하는 개념이나 방향성이 모든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

나. 생활예술의 일상성이 전제하는 평범함

- 생활예술의 개념에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일상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나 예술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접하거나 해석할 수 상황이 필요함.
- 경제 활동에 매진해야 해서 여가나 문화를 즐기기 힘든 사람, 혹은 예술적 경험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은 일상적 문화활동이 가능하지 못함.
- 특히 문화공간에의 접근, 문화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장애인의 입장을 통해 생활예술의 일상성을 해석해보면 결국 현대사회의 정상성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가 없는 몸을 가진 사람, 생계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여가 생활이 가능한 사람 등이 중심이 되는 생활예술이 전제될 경우 자칫 이것이 인간의 평범함이나 삶의 기준으로 여겨질 수 있음.
- 이것은 생활예술 안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개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예술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모순된 지점이 있음.
- 더 나아가 평범함의 기준은 인간에 대한 정상성의 기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활예술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참여를 전제하는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함.

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장애인의 일상적 불평등

- 현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적 경험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예술활동에의 범위가 매우 좁음.
- 특히 도시에서는 장애인이 문화공간까지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이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만 여겨질 경우 장애인은 사회제도 안에서 선택, 제안되는 문화예술활동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수동적 입장에 놓이게 됨.
- 문화예술활동은 무엇보다 인간의 주체적인 참여나 실행이 전제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각자의 관점과 속도를 전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가 점차적으로라도 제거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필요성

가.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전제하는 개념과 참여범위에 대한 고찰

- 최근 3년간 시행된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일반화된 사회적 기준을 전제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현황 파악.
- 생활문화가 지향하는 일상성, 주체성, 다양성의 의미가 현재의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범위에서 다각도로 고려되고 있는지 재고.
- 생활문화가 전제하는 일상적 참여가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지, 그것과 연관된 사회적 요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고찰.

나.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애인 참여 범위 확대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 비율에 대한 조사, 혹은 그 조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범위와 방식 조사 및 제안.
- 장기적으로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참여주체 및 참여를 위한 장치들에 대한 논의 마련.

다. 생활문화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의 재고

-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일상적 활동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문화가 정책적 개념으로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 필요.
- 정책적으로 생활문화가 필요한 이유 이전에, 인간 중심으로 생활문화 정책이 설계,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장애인과 생활문화 개념에의 연결 가능성을 통해 생활문화 안에서 인문학적 가치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라. 생활예술매개자(FA)의 역량 개발 모델 제안

- 생활문화가 지향하는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FA가 공동의 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개발에의 필요.
- 사업운영과 관련한 역량 이전에 FA에게 필요한 역량 및 논의의 기회를 교육 모델의 제안을 통해 검토.
- FA의 인문학적 논의 기회 확대를 통해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의 장애인 포함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생활예술의 개념에 대한 고찰

- 다른 몸, 감각, 삶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예술 참여 가능성 검토
-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예술에 대한 개념적 고찰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비율 및 일상성에 전제된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과 사회문화적 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 동호회, 소모임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문화생활 연구
-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생활예술의 개념과 맥락 재검토 및 개선방안 설정

나.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의 참여 현황 조사

- 기존 사업구조 안에서 장애인의 참여 현황 파악 가능성 검토
- FA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현황 조사
- FA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 사례 조사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전제로 사업 참여 가능성 조사

다.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의 활동 지원방안 연구

-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장치 검토
- 장애인의 활동 지원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 현재 상황에서 설계 가능한 장애인의 활동 지원방안 단계적 연구 및 제시

라. FA 역량 개발방안을 위한 교육 방향성 및 모델 제시

- FA 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
- FA 활동 내용 관련 논의 확장 가능성 연구
- 생활예술에 대한 일상적 실천방법과 관련된 자발적 관심 고취방안 제시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FA 역량 개발방안 제시

마. 연구결과 종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사업 전반에 대한 생활예술 개념 확장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방안 제시
- 연구 종합 분석 및 사업적 발전방향 제시
- 현장 중심의 단계적 개선 방안 제언

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 17~18년도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연구결과
- 기타 생활문화 및 장애 관련 문헌, 정책 자료집

나. 국내외 사례조사

- 장애인의 삶과 문화예술 활동을 연결한 국내외 사례 조사
- 일본 현장 인터뷰 및 공간 탐방

다. 1:1 인터뷰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연구자 및 장애인 문화활동 관련 활동가, FA 대상 1:1 인터뷰 진행

<표1-1> 전문가 및 활동가 인터뷰 내용

대상	내용
장애인문화예술관 대표 좌동엽	장애인의 예술활동 및 관련 제도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최혜자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라도삼	생활문화 개념과 시민의 주체성
前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교육/조사팀장 오하나	장애인의 삶의 권리 관련 법령 및 협약

인포숍카페별꼴 매니저 우에타 지로	인포숍카페별꼴 사례
2019 생활예술매개자(FA) 김영미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 참여
2019 생활예술매개자(FA) 이혜령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 참여
2019 생활예술매개자(FA) 임성현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 참여
2019 생활예술매개자(FA) 최미나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 참여

라. FA 대상 워크숍 연계 FGI

- 2019년 활동 중인 FA 대상 생활문화 사업 및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인터뷰를 워크숍과 연계한 형태로 진행

<표1-2> FA 대상 FGI 내용

날짜	내용
8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장애인 접근성 조사 워크숍 - 시설접근성 조사 관련 체크리스트 안내 - 생활문화 사업 관련 FA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의견 인터뷰 

<p>11월 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지원센터 장애인 접근성 조사 완료 후 의견 공유 - 연구를 통해 기획한 FA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후 피드백 공유 및 개선안 마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마.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된 공간의 장애인 시설접근성 조사
- 생활문화지원센터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시설 접근성 조사 후 분석
-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시설 조사 협조 요청 후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자로 모집된 FA 5명과 협력하여 시설 조사 시행
- 조사 기간 : 2019.09. - 11.
- 조사자 : 강정아, 고륜호, 김예원, 김정주, 김제형, 임성현
- 조사대상 : 생활문화지원센터 22곳
- 조사 내용 : 1) 교통수단/거리 2) 건물 주출입구 3) 화장실 4) 복도 및 층간 이동 5)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
- *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체크리스트> 부록 별첨

바. FA 대상 설문조사

- 생활문화사업 내 장애인 참여자 목격 및 교류 경험, 장애인의 생활문화 사업 참여 방안, 관련 의견 등 설문조사 진행
- 설문기간 : 2019.10.26. - 11.30.
- 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양식 활용
-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조사> 온라인 설문 내용 부록 별첨

사. FA 대상 심층 인터뷰

- FA 대상 설문조사 취합 후 응답자 중 생활문화사업 내 장애인 목격 및 교류 경험자 심층 인터뷰 진행
- 인터뷰 기간 : 2019.12.15. - 12.31.
- 인터뷰 대상자 : 김영미(동아리네트워크), 임성현(광진구FA), 이혜령(영등포구FA), 최미나(중랑구FA)
- 인터뷰 방식 : 연구자와 1:1로 진행

제2장.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생활예술

제2장.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생활예술

1.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의 배경 및 역사

1) 개념의 역사

가. 예술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활문화: 1987-2004년

-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정치적 변화·사회 변동·문화적 환경·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금까지 개념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가 달라져 왔음
- 따라서 ‘생활문화’, ‘생활예술’의 정의를 문자 그대로 전달하고 학습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맥락에서 개념이 생성, 발전되었는지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생활문화는 문화적 자산과 자원을 창작 활동을 하는 소수의 예술가 중심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국민들의 대중적 문화 생활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함
- 이런 변화는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런 점에서 한 연구보고서는 이 시기(1987-1993)를 ‘생활문화정책의 태동기(서울문화재단, 2017)’라 명명하기도 함
-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1993년 <문화창달 5개년 계획>,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문예진흥기금 확대와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설립 등은 ‘생활문화’를 표면적으로 지향한 정책적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문화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생활문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음(서울문화재단, 2017)
- 참여정부의 2004년 <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은 사회의 전반적인 창조성을 강조한 ‘창의한국’이란 흐름 아래 예술의 중요성을 말한 선언적 정책이며,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도 강조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수예술의 가치와 지원 목적을 구체화한 문서임(문화관광부, 2014).
- 향유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생활 속의 예술’이란 표현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새예술정책>을 토대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소외계층,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 도서지역 거주자들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향유자 중심의 기관을 표방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

과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다른 예술 지원기관에 비해 가장 일반 국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함(문화관광부, 2004).

나. 생활예술 언어의 등장: 2005-2012년

- 2005년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함(박승현, 2008).
- 이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동호회/동아리를 ‘사랑방문화클럽’이란 이름으로 호명하고, 기존의 개별 클럽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클럽들 사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임(박승현, 2008).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던 동호회의 활동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자 자원으로 변환시키고, 이 성공사례가 정책적, 학술적 영역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이후 시민 중심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롤모델이 됨(강윤주·심보선, 2017).
- 또한, 인천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해 온 ‘문화바람’의 사례도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의 주체성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시민 참여’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됨(강윤주·심보선, 2013).
- 2012년 발간된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 점에서 2005년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시민의 주체적 참여’ 활동과 흐름을 ‘생활예술’이란 이름 아래 규명하고 정의한 첫 번째 학술적 시도임(강윤주, 2012).
- 이 보고서는 전문예술, 공동체 예술, 문화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생활예술의 특성을 차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시민의 집단적 문화예술 활동이 가진 사회적 연계와 네트워크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강조함.

다. 생활예술 언어의 논란: 2013-2018년

- 실제 정책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실행되고, 파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감에 따라 생활예술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의 증대, 특히 생활예술이 지역 커뮤니티 재생 또는 활성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담론이 늘어난 결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 관련 조항이 추가됨.
- 여기서 ‘생활예술’이라는 용어 대신 ‘생활문화’를 사용한 배경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데, 첫째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생활예술’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생활’이란 단어 대신에 자발적(voluntary), 일상(everyday)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생활과 예술의 단어적 결합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음. 둘째는 ‘예술(art)’이란 단어 자체에 일종의 권위적 성격이 존재하여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예술이 아닌 것을 배제,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민주주의적 토대의 위에서 생활+예술보다는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더 널리 채택됨.
- 2016년 설립된 ‘생활문화진흥원’의 사례에서도 보면, 정부에서도 생활예술보다는 생활문화를 더 상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은 ‘예술 지원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점에서 생활문화 대신 생활예술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 예술가나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특수성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음.

라. 생활예술정책 2.0 도래: 2019년-현재

- 생활예술과 생활예술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결과 문화디자인자리는 2019년 서울문화재단의 연구용역으로 <생활문화정책2.0수립연구>를 진행함.
- 이 연구는 아래의 5가지 차원에서 기존 생활예술정책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생활문화 관점의 혼란’, ‘협치/지역화의 일방성’, ‘공간(시설)의 역할 부재’를 문제 지점으로 분석함.
 - ①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급자 관점의 사업 설계
 - ② 설계에서 실행까지 과도한 매뉴얼화로 인한 주체 형성 여건 축소
 - ③ 생활문화, 생활문화사업, 생활문화매개인력에 대한 부정확한 역할 설계
 - ④ 과정상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의 유연성 부족
 - ⑤ 생활문화 활동을 지나치게 과업화 하여 과도한 부담 발생
- 위 연구의 결과는 2019년 11월 포럼을 통해 공유되어 현재(2019.12) 기준으로 연구에 따른 생활문화/예술 정책의 유의미한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려우며, 2020년 서울

문화재단 주관 사업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 효과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2) 개념의 구체적 내용

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생활문화, 생활예술의 정의

- 연구에 따라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정의를 모두 제시한 것, 또는 둘 중 하나의 정의만 제시한 것이 있음.

〈표2-1〉 생활예술 개념 정의

연구	개념 정의
생활예술 지원정책 방안 연구 (강윤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 - 생활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삶의 자원으로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체적 조직, 주체적 결정과 주체적 표현의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것
지역문화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중 2항)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 (정중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은 행위자의 활동을 기준으로 보고 또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양적 포함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적 차이 존재 - 생활문화는 근대적 감상자의 시점을 취하여 인식적, 평가적, 교육적, 정보적 측면에서 문화에 접근하는 것 - 생활예술은 주체적 창작자의 시점을 치하여, 활동적, 창조적, 개별적으로 특화된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것 - 즉,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은 주체적 창작 활동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구분할 수 있음
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조광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는 ‘이론적 개념속성’ 으로 구체화를 하면, ‘생활적 일상성’, ‘자발적 주체성’, ‘장르적 다양성’, ‘문화적 인지성’ 의 4가지로 구성됨 - ‘실제적 개념전개범위’ 로 한정해보면, ‘사회적 전개 범위’ 로는 지역주민이 사회생활을 영위 및 유지하는 가운데 원하게 되는 문화적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문화활동이어야 하며, ‘시간적 전개 범위’ 에서는 주민 개개인의 생애주기 안에서 동일계열의 내용 범주 및 구조에 의한 활동이 반복적 또는 주기적 활동패턴을 생성하는 문화활동이어야

	<p>하고, ‘공간적 전개 범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어야 함</p> <p>- 생활문화의 장르는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의 4가지로 구성됨</p>
<p>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정광렬, 2016)</p>	<p>- 지역의 주민 및 문화수요자들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주체적인 문화적 삶을 위해 일상에서 문화기획 과정에 자발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p>

나. 생활예술 개념의 특성

※ 위의 생활문화 및 예술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생활예술 개념의 특성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음

- 주체성: 생활예술은 소수의 엘리트 예술가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예술 창작과 향유의 주체가 된다는 관점. 따라서 생활예술 안에서는 강사나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고, 나의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예술이 시작될 수 있으며, 항상 모든 활동과 행위의 중심에는 주체성을 인정받은 자아가 존재.
- 자발성: 생활예술은 나의 순수한 의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다는 관점. 외부의 강요, 권유에 따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수동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힘을 발휘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차원.
- 일상성: 생활예술은 일반적인 예술에 비해 시민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수동적으로 일상을 공급받는 삶으로부터 변화하여 주체적으로 일상을 만들어가는 행위자의 역량에 집중. 수월성이 높은 예술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일부로 예술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생활예술의 가치를 높게 인정함.
- 시민성: 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를 상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생활예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는 관점. 생활예술을 시민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민이 당연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의 하나가 곧 예술이 되는 것이며, 예술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에 속한 개인으로서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으로 인정받음.
- 지역성: 생활예술을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매체로 이해하는 관점. 여기서 지역성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술을 통

해 형성된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초점.

다. 개념의 쟁점

- 주체별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름: 생활문화 또는 생활예술은 기관관계자, 문화예술 단체, 예술가, 시민 등의 주체마다 각자 정의하는 방식이 다름. 예를 들어, 생활문화 또는 예술이 포함하는 ‘장르’는 어디까지인지. 음악·회화·춤 등 순수예술 장르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생활’은 얼마나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을 의미하는지 등의 질문에서 논쟁적임.
- 개념 정의에 따라 이해관계의 문제 발생: 이렇게 주체마다 개념 정의가 다른 것이 이해관계의 문제로 나아가는 이유는,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의에 따라 어떤 집단에게는 지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예를 들어, ‘꽃꽂이’ 활동을 예술의 범주로 보기 어려워서 생활예술 장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꽃꽂이 동호회는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음. 한 지역에서 문화원의 생활문화예술 강좌로 꽃꽂이와 서예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가 만약 서예 동호회만 지원을 받게 되면 꽃꽂이 측에서는 왜 꽃꽂이가 생활예술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됨.
- 생활예술 개념의 사업 적용 여부: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둘러싼 개념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막상 이 개념이 곧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생활예술매개자(FA)들이 지역에서 직접 동호회/동아리를 섭외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축제/이벤트를 기획할 때 어떤 활동이 예술이 아닌 문화이기 때문에 배제하거나, 어떤 활동의 예술적 가치를 더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생활예술매개자 각각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생활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개념을 둘러싼 갈등 지속: 생활예술 개념에 대한 논란은 사업이 출범한 해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례로 2019년 부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들이 협력하여 생활문화 또는 예술의 개념과 정책을 점검하는 목적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 7-8월 지금까지의 생활예술 지원사업을 1.0으로 명명하고, 앞으로 변화할 2.0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함. 이 과정에서 6회의 라운드테이블의 구체적인 주제는 달랐지만, 사실상 개념을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 하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함.

라. 생활문화정책2.0의 개념

- 생활문화정책2.0은 법률적 정의 외에 개념을 구체화하는 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만든 일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생활문화 개념을 정의함 .
- 기량으로서의 예술 대신에 삶의 원천으로서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가꾸는 활동을 통해 일상이 회복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와 결합을 도모함.
-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거한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기반해 생활문화정책1.0의 ‘장르 중심’ 사고에서 ‘지역 중심’ 사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2. 생활예술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가. 생활예술 개념의 채택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1항을 보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고 정의함.
- **지역문화 내의 생활문화:** 위의 1항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의 구체적인 활동 중 하나로 생활문화를 정의하여,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의 하위 범주인 것으로 표현함.
-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강조:** 총 7장으로 구성된 법 중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부분에서 ‘생활문화 지원(제7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제8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제9조)’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지원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제7조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는 항목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호회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함.
- **지역문화재단 내 생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인지:**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조항을 통해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문화진흥’ 의 방향성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나. 지역사회와 동호회

- 풍물패, 두레패 등 조선시대 때부터 전국의 농촌 마을에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문화예술 분야 주민 모임 존재.
- 2010년대 중반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지역사회에서 합창단, 색소폰 동호회, 오케스트라, 댄스 동호회, 미술 동호회 등 각 장르별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동호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짐.
- 현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효시가 된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클럽’ 사업이 지역사회 문화예술 동호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지역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동호회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짐.
- 생활문화 동호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현재 실무자 및 FA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숨겨져 있는 동호회를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파악된 동호회들 간의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다. 지원사업의 쟁점

- **동호회 지원의 맹점:** 사업의 편의성 측면에서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었으나, 최근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 중요한 소비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적 취향의 공론장이 형성되면서 “생활 문화 지원사업이 동호회만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됨.
- **지원사업 범위의 문제:**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1인 매니아 또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취향 개발과 향유가 소수의 매니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인의 생활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함.
- **강요된 주체성과 자발성:** 지역문화재단 주도의 사업이 이전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동호회의 활동을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동호회 및 지역 사회 주체들과의 관계적 활동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임. 동호회,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는 회원의 성향에 따라 공동체적 집단 연결망 형성에 대해 호불호가 나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쪽의 입장에서는 주체성과 자발성이 강요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음.

3.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1)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배경

가.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1)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2016.6)은 ‘시민이 행복한 삶’, ‘삶을 위한 문화발전’이라는 방향 아래 시민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5개 범주별(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목표를 담고 있음.

〈표2-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목표

범주	목표
개인	1 선언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2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
공동체	3 함께 즐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4 배타적인 공동체를 포용적인 공동체로
지역	5 지역을 삶이 있는 일상의 생활문화공간으로
	6 문화를 지우는 재생에서 문화를 담아내는 재생으로
도시	7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에서 역사를 존중하는 도시로
	8 우리나라 창조경제 허브에서 세계의 허브로
	9 서울을 창의인재와 예술인이 모이는 도시로
행정	10 문화정책을 관주도에서 조정과 협치로

-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2016.8) 및 발표(2016.10)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2017.1.5. 시행)

나. 추진경과

- 서울문화재단 내 생활문화지원단 신설(2017.1.) 및 지원단장 임명(2017.3.)
-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의 추진목표는 ‘이제 서울시민이 객석에서 무대로(생활예술 동아리 1,000개팀 발표 및 축제 참여)’ 로, ‘생활예술 관심자’ 를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생활예술 참여

자'로 성장시키고, 이들이 중심이 된 동아리 지원을 통해 '생활예술 활동가'로 성장시키고, 국내외 축제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민 생활예술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2019년 사업 3년차를 맞아 생활예술 사업의 중간 점검 및 새로운 비전 설정을 위해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2.0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였으며(8/6-27, 총 6회차), 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정책 2.0> 연구 결과를 발표함

다. 추진방향 및 원칙 (2019년 12월 기준)

- 비전: 생활문화 가치 공유 그리고 확산
- 중점목표: People(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Place(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Platform(생활문화 기반 조성 지원)
- 생활문화캠페인: “내 맘대로 예술”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걸로
- 사업목표
 - 생활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 창조적 활동 촉진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생활예술을 통해 서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
- 사업대상: 생활예술에 관심이 있는 개인, 동아리 등

2)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유형 및 종류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거버넌스 25', '생활문화지원센터', '생활예술매개자',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위댄스', '동아리네트워크', '일상예술활성화', '생활합창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부터 각 사업을 간략하게 정리, 소개하고자 함

가. 거버넌스25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

- 소개: <생활문화 거버넌스>란 생활문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생성을 갖춘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하며 그 연결고리를 민·관이 협력해 함께 엮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은 동아리 네트워크임.
- 목표: ① 자발적/지속적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성, ② 핵심 5대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화 모델 구축

- 단계적 발전전략:
 - 인적자원 - 동아리 발굴, 네트워크 구성
 - 공간자원 - 연습공간발굴, 유휴공간 지원
 - 지역콘텐츠 - 동네이야기 발굴
 - 문화지도 - 지역축제 만들기
 - 거버넌스 - 협력시스템 구성

나. 생활문화지원센터

- 소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생활예술 활동(연습, 교류, 발표)을 즐기는 공간
- 목표: ① 공공문화기반시설 일부 등 리모델링, 민간보유 유휴공간의 개방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 인프라 확충, ②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자치구 단위 생활문화 활동의 종합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역의 커뮤니티 발굴 및 생활문화 활성화 추진
- 대상: 서울시내 80㎡ 이상의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공간을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다. 생활예술매개자(FA)

- 소개: 생활예술매개자는 ‘Facilitating Artist’의 약자로 서울시민의 자발적 생활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가로서 생활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찾아가 참여자로 이끌고 인적자원·공간자원·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생활예술 동아리와 단체를 연결함
- 목표: ① 생활예술매개자 양성을 통한 생활문화 촉진 활동 수행, ②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서울 시민을 참여자로 이끌어 생활문화 확산 및 선순환 구조를 구축, ③ 서울 시민의 자발적·자생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인적, 공간, 문화콘텐츠) 매개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④ 생활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상: 대화와 협의, 그리고 핵심과약에 능한 퍼실리테이터, 주체성과 예술성을 지닌 문화 애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일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 지역에

관심이 많으며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갖춘 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를 꿈꾸는 활동가

<표2-3> 생활예술매개자 구성도

구분	내용	
지역 매개자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50명 내외)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권에서 생활예술 활동 지원 - 지역별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 공간 등 실태조사 진행 - 지역의 특성을 담은 콘텐츠 발굴, 관련 생활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매개 역할 수행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5명 내외)	- 국내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발굴 및 현황 조사 -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추진위원회 참여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관련 네트워크 조성
장르 매개자	생활예술 댄스 (3명 내외)	- 동아리·동호회 등 춤 장르 공동체 활동 현황 조사 - 춤 모임 발굴, 장르·지역별 공동체 구성 및 교류 추진 - 위댄스 페스티벌, 서울춤자랑 관련 활동
	동아리 네트워크 (3명 내외)	- 다양한 장르의 신규 생활예술 동아리 발굴 - 동아리 간 교류 추진, 역량 강화의 기회 마련 - 장르별 합동공연의 장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일상예술 (3명 내외)	- 생활예술인 발굴 및 관련 현황 조사 - '생활예술 해커톤' 네트워크 구성 - 생활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시스템 형성

* 출처: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홈페이지

라. 생활예술오케스트라

- 소개: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시민 누구나 음악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개최
- 공연단체: 2019년의 경우 생활예술오케스트라 30개 단체, 학생오케스트라 9개 단체,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생활예술오케스트라 등이 무대에 오름

마. 위댄스 (생활예술 춤 활성화사업)

- 소개: 시민의 일상 속 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춤추고 싶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준비

- 목표: ① 일상 속 춤 문화 확산, ② 지역, 장르별 춤 동호회 발굴 및 활동지원, ③ 지역(자치구)을 대표하는 춤 동호회 선발, ④ 장르별 춤 동호회 주도하는 합동공연 및 시민 만남 주선
- 사업 구성:
 - 위댄스캠프: 6개 장르별 춤 동호회의 연합 활동을 지원
 - 서울춤자랑: 40~80대 시니어 춤 동호회 대상 우리 동네 대표 동호회 선발
 - 위댄스 페스티벌: 춤 동호회가 직접 만드는 생활예술 춤 축제

바. 동아리 네트워크

- 소개: 개별 동아리 지원이 아닌 장르 동아리 그룹별 네트워킹 활성화 및 그룹별 소공연, 장르별 동아리페어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예술의 활성화 계기 마련
- 사업 구성:
 - 게더링 프로그램 (동아리 페스타 + 동아리 메이트)
 - 생활예술동아리의 자발적인 네트워킹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통칭
- 대상: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 장르 동아리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공예, 사진·영상, 기타 등 6개 장르)

사. 일상예술활성화 (시민 일상예술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소개: 시민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예술인 공모, 생활예술 해커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목표: ①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 창조적 활동 촉진 및 생활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② 생활예술을 통해 서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 ③ 일상 속 창조적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④ 맞춤형 간접 지원 체계 수립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생활예술인 협업 신규 모델 개발
- 대상: 일상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는 개인 누구나

〈표2-4〉 일상예술활성화 사업 구조

구분	“생활예술인 지원 확대” (시민 개개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 구조 다각화)		“네트워킹 강화 및 성과 공유” (단계별 사업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생활예술인 공모 (확대 운영)	게더링 프로그램 (신설)	생활예술인-멘토-FA (협업체계 구축)	생활예술인 페어 (성과 공유회)
내용	일상 속 창조적 활동을 하는 시민 개개인 200명	자발적 생활예술인 모임 (생활예술매개자 협업) 100명	해커톤, 장르별 멘토링,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6회	개인의 취향예술 지원 전면 확대 및 생활예술의 범위 확장 1회
	300명 내외			

* 출처: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홈페이지

아. 생활합창활성화 사업

- 소개: 자치구 기반의 생활합창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합창문화 시스템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
 - 목표: ① 지역(자치구) 내 생활합창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②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합창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모델 개발
 - 대상: 자치구문화재단 및 자치구청
- 내용: 지역의 생활합창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구립합창단 및 종교단체 소속 합창단체는 사업 대상에 제외)

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 소개: 다치구 대상의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목표: ①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② 장르 중심의 생활문화에서 벗어나 폭넓고 다양한 생활문화 교육 모델 발굴
- 대상: 자치구문화재단 및 자치구청

제3장.

장애인과 생활예술

제3장. 장애인과 생활예술

1. 장애인의 문화향수

1) 장애와 장애인

가. 법적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표3-1〉 장애인복지법 상의 유형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음성장애/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	발달장애	지적장애

적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나. 장애인의 참여적 권리에 관한 법령 및 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참여, 평등권), 장애인 편의증진법(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화장실, 보도블럭, 핸드레일, 장애인석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0인 이상 할당고용제, 50인 미만 고용부담장려금 등).
-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한 세계 최초의 국제 규약으로, 장애 인권에 관한 세계적 기준의 국가보고서임. 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한 의제들을 취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UN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안)’ 이 완성되어 2008년 비준을 통과해 2009년 국내법으로 발표, 시행됨.
- 2019년 UN장애인권리협약의 2, 3차 병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탈시설’ 개념을 인정함. 부연하자면, ‘탈시설’이란 시설에 살거나 보호받지 않는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장애인을 보편적인 인간이자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이들을 해방한다는 의미를 가짐.
-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인권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건강권(의료적 관점)’, ‘노동권(장애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화권’ 이 있음.
- 장애인이 누려야 할 여러 권리 중 하나로써 문화적 삶과 여가 생활이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아직까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접근성(제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제19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제30조)’ 등의 내용이 개별적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예술의 테두리 안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위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장애인의 총체적인 문화적 권리 획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함.

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을 전제로 서술함.
-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장애를 어떻게 투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러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김도현, 2007: 32). 특히 근대 사회에 들어 생겨난 장애인이라는 구분은 임노동 관계로의 포섭 가능 여부에 따라, ‘불인정不認定 노동’ 계층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음. 이러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과정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되어갔음(김도현, 2007: 72).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은 규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호명된 임의적이고 가변적인 정체성일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복지법 상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에만 집중할 경우 사회적 인식이 지배하는 현실과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호명된 정책 대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정체성이 중요함. 그런데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이름이나 범주로 호명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김도현, 2019: 291). 또한 개개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계급이나 국민, 민족 같은 집단의 정체성 역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고 인간은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김도현, 2019: 292)는 측면에서 장애인을 사회가 규정한 개념으로만 전제하는 것은 특히 시민의 주체성이 중요한 생활예술 개념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을 정의하는 법적 내용을 토대로 하되 그것이 갖는 한계를 인지하고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함께 살피고자 함. 이것은 장애인의 현실적 개념 설정을 넘어 장애인과 생활예술과의 연결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임.

2)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개념

가.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 장애인 예술(Arts done by disabled people):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 (전병태, 2014)
-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문화다양성과 평등의 기조 아래 접근할 경우, 장애 예술을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장애인에 의해, ‘장애’라는 경험이

반영되어, ‘장애 요소’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것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37)

- 장애 예술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름.

<표3-2> 장애예술인의 정의

구분	정의
전병태(2014)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장애의 정치적, 개인적, 미학적 의미를 의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자로서, 나아가 장애 예술을 새로운 예술 언어로서 자리잡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의 실천을 실행하여,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한국장애예술인총합 (2010)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활동을 3년 이상 한 경우
장애예술인수첩 (2018)	개인: 예술활동에 의한 수상 경력, 발표 횟수로 판단 단체: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위한 설립목적, 장애 예술인 회원의 일정한 할당, 발표 횟수로 판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만 15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아래 5가지 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을 예술인이라고 생각함 ②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음

	③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④ 장애인 및 예술 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음 ⑤ 장애인 및 예술 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초청되어 예술활동을 한 적이 있음
--	--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나. 장애인 예술 활동가

- 정의: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활동을 하여 발표, 출판, 전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장애 예술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향후 장애 예술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의미.
-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 활동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위 표X의 장애 예술인을 규정하는 5가지 기준 중 한 가지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 예술 활동가로 정의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45).

3)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선행연구

가.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관련 선행연구

- 공공 분야에서 진행한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음.
- 타 예술분야에 비해 실태 및 환경 파악 목적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표3-3> 장애 예술 선행연구 목록

제목	발주처	담당자
2019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박신의 (경희대)

실태조사 기초연구		
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2012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사)몸짓과 소리
2010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 회
2005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사)한국장애인 문화협회

* 박신의(2018) 103-104쪽 참조

나. <장애인실태조사(2017)> 중 문화, 여가 파트

-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생산함.
- 1980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여 2017년도에 실시된 조사는 10차 조사임.
- 가구관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25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 중 36,200가구, 91,405명 가구원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 이들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모두 6,54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과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을 구분하여 서술함.
-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은 다음의 영역으로 구분됨.
 - 보건의료 및 건강
 -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 교육
 - 취업 및 직업생활
 - 사회 및 문화, 여가활동

- 결혼생활, 여성장애인
 - 생활만족도 및 폭력, 차별 경험
 - 주거
 - 복지서비스
 - 경제상태
- 문화, 여가활동 관련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조사함
-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율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
 -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
 -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여가활동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비교 분석하여 서술함.

다. 장애인의 참여적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

-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 -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진욱, 정무성 저. 『사회과학연구』 2013.2.
 - 연구대상: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연구방법: 심층면접
 - 연구결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은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생김’, ‘똑똑해짐’, ‘행복해짐’, ‘당당해짐’을 경험함
- <문화예술복지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용에 관한 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11.
 - 연구대상: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관객
 - 연구방법: 설문조사

- 연구결과: 장애인들은 지원사업(장애인이 직접 예술가, 문화생산자의 역할을 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사업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함.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한 관객들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장애인 무용의 개념 및 가치 재탐색> 홍애령 저. 『문화정책논총』 2015.1.

- 연구대상: 장애인 무용수
- 연구방법: 문헌분석, 심층면접
- 연구결과: ① 장애인 무용과 관련된 개념은 주체성, 참여율, 무용전문성에 따라 ‘특수무용’, ‘장애인 무용’, ‘커뮤니티 댄스’로 구분됨. 장애인에게도 자신의 삶을 몸으로 표현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장애인이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② 장애인 무용의 가치는 그들이 춤추고 만들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 및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적 소외 및 고립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변화경험 연구> 이소원, 이용표 저. 『GRI연구논총』 2015.12.

- 연구대상: 장애인, 사회복지사 및 예술강사
- 연구방법: 심층인터뷰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 연구결과: 기존 장애예술 관련 연구들이 기능 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문화예술수리 분절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결과 ‘회복을 지향하는 삶’, ‘나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홀로서기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발견’, ‘공존과 공생의 삶’의 4개의 키워드를 도출함

○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지연, 심경순 저.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6.9.

- 연구대상: S 사회복지시설에서 2012-15 진행된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10명
- 연구방법: 심층면접

- 연구결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역량강화는 “인문학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삶의 길을 열다”로 압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의 본질은 ‘자신을 바라보는 내적인 힘이 생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외적인 힘이 생김’, ‘사회적 참여기회를 통한 역량강화’, ‘삶의 길을 발견하다’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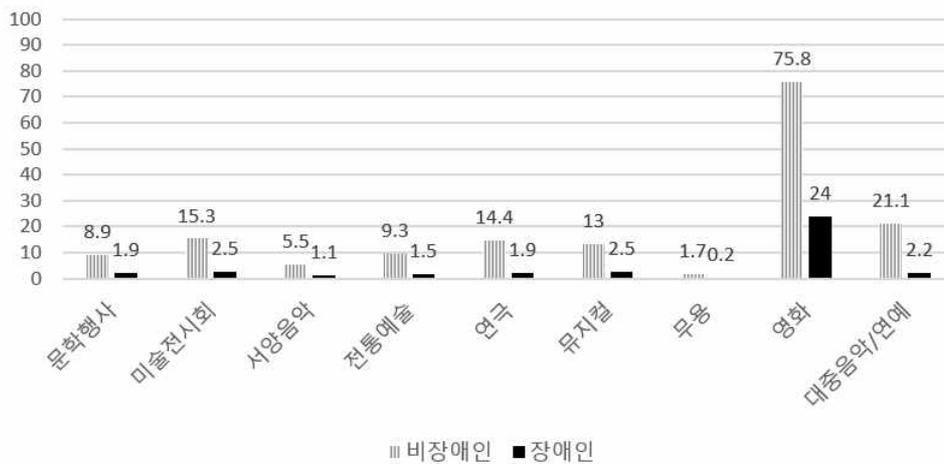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향수 실태 비교

- 장애인의 문화향수 실태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중 문화·여가활동 파트의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함
- 비장애인의 문화향수 실태는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가.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실태

- 지난 1년 예술 장르별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관람률은 아래 그래프와 같음

<그림3-1>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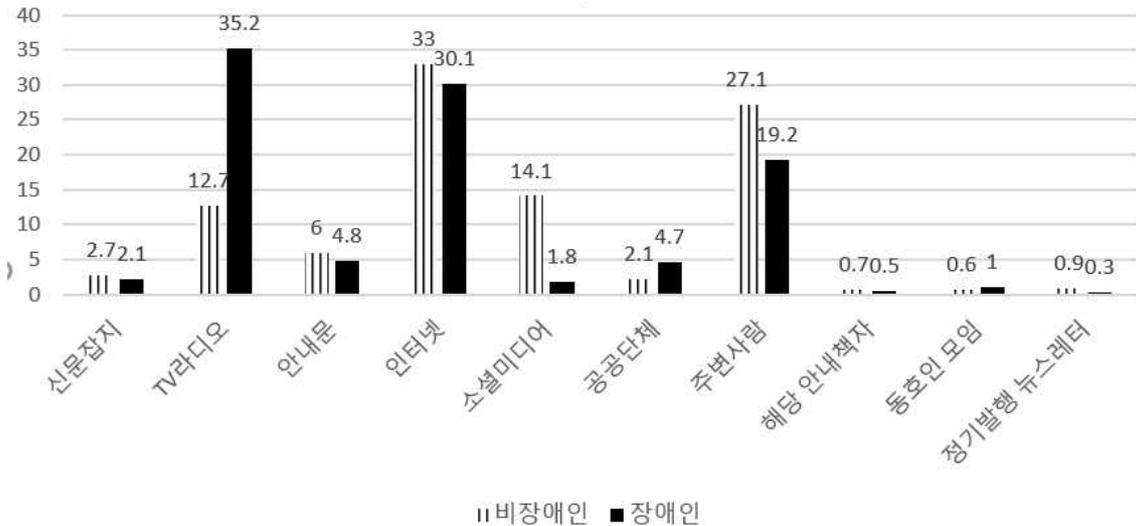


- 대중예술(영화, 대중음악/연예) 장르가 순수예술 장르보다 관람률이 높은 전반적인 경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임
- 그러나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영화 장르에서 비장애인은 75.0%, 장애인은 24.0%로 관람 경험의 격차는 51.0%p로 상당한 수준임
- 기타 모든 장르에서도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 정도는 아주 낮음

나. 문화예술 행사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아래 그래프는 총 10개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응답임

〈그림3-2〉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정보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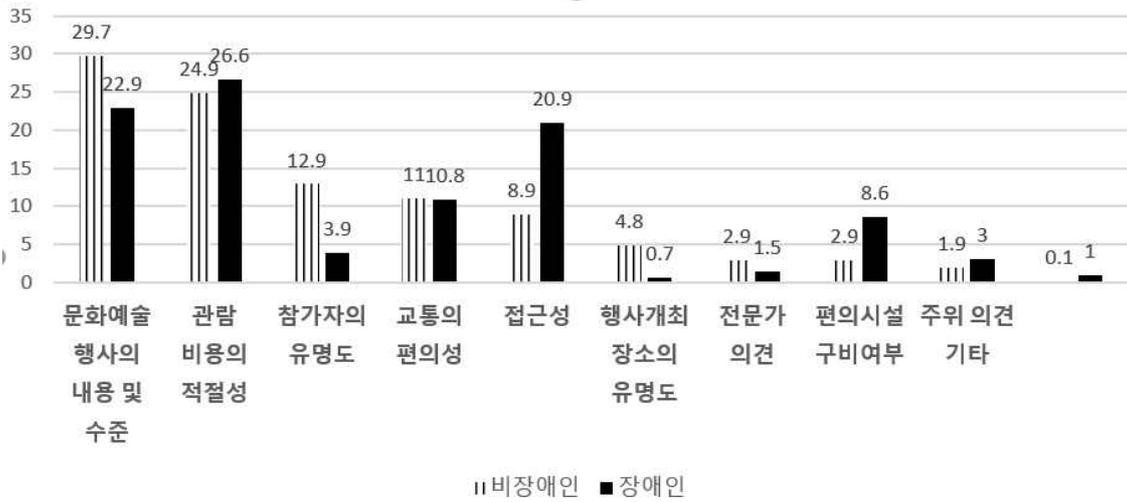


- 비장애인은 인터넷 > 주변사람 > 소셜미디어 > TV라디오의 순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 장애인은 TV라디오 > 인터넷 > 주변사람의 순이며, 비장애인과 달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중이 상당히 낮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행사가 유통되는 정보의 플랫폼 내에 전혀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함. 다른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맺기, 팔로우 등의 형태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발히 이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음.
- 장애인이 인터넷보다 TV라디오라는 전통적인 매체에서 더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임.

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시 중요한 기준

○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10개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그림3-3〉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시 중요한 기준



-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행사의 내용 및 수준’ 과 ‘관람 비용의 적절성’ 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함.
- 두 집단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은 ‘접근성’ 으로 비장애인의 경우 거리가 멀거나 공간이 협소해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작품과 행사라면 찾아가서 관람하게 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지리적 위치, 교통, 공간의 환경적 조건 등이 중요한 요소임.
- 다음으로 ‘편의시설 구비여부’ 항목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장애인용 좌석 등의 편의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 장애인의 삶과 생활예술

1) 장애인의 삶과 기존 생활예술 개념과의 연결 가능성

가. 기존 생활예술 개념과 정책적 방향

- 강윤주, 심보선 등은 생활예술을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 또는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과 대비하여 ‘영역, 즉 일·가족·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예술활동’ ” 이라고 정의함(강윤주·심보선, 2017: 43).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주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토론하고 창조하는 강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강윤주·심보선, 2017: 82)으로도 설명함.
- 생활예술과 전통적 예술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슈임. 생활예술의 주체를 시민·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공통적 감각과 의미를 창조하는 데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강윤주·심보선, 2017: 78)라고 강조되기도 함.
- 이에 따라 생활예술의 지향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3-4〉 생활예술의 지향점

목적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 이해
주체	시민(주민)-예술가, 예술가-시민(주민)
예술	창조적인 커뮤니티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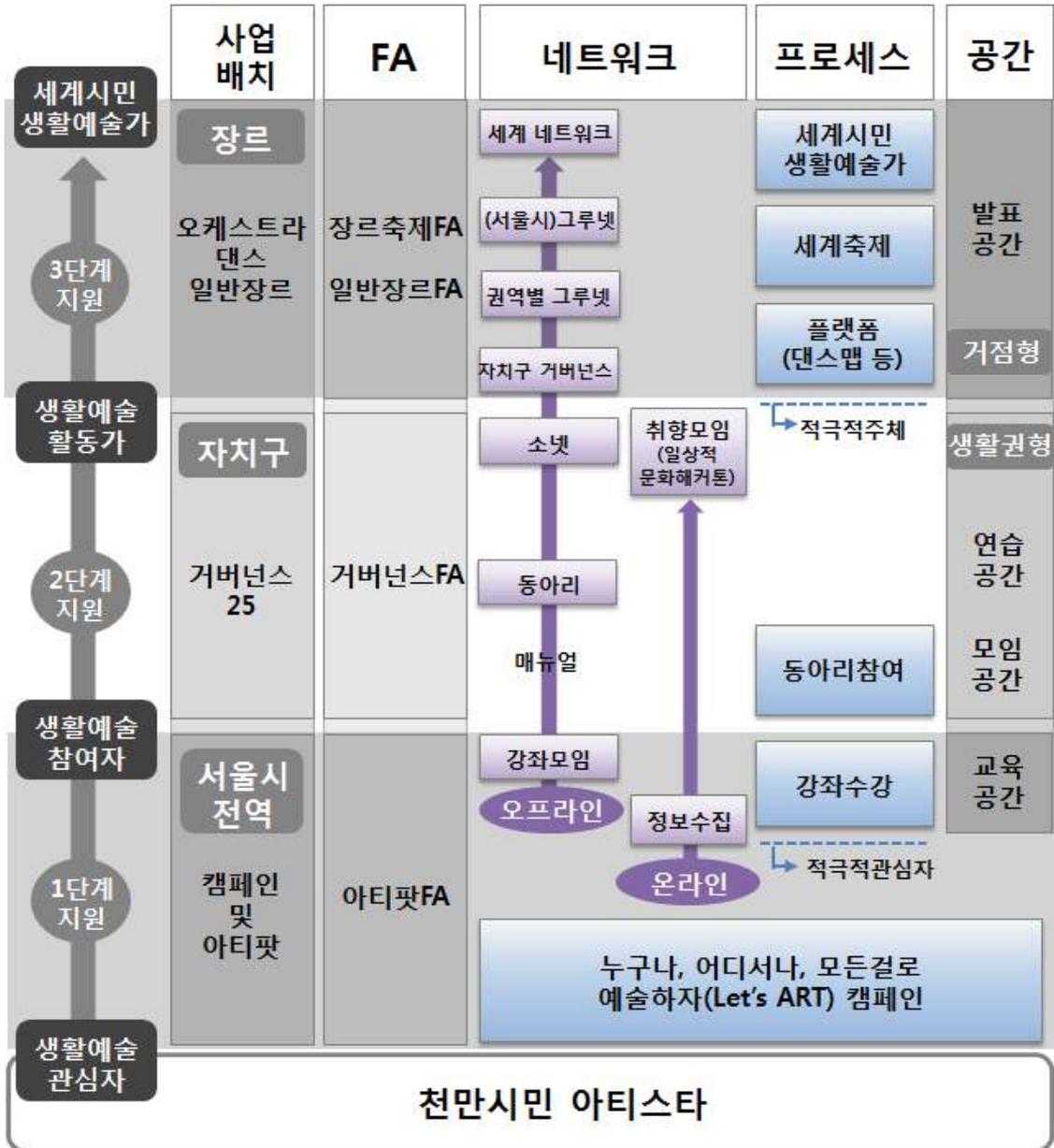
* 출처: 강윤주·심보선(2017: 83)

- 또한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문화도시 설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민이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갑니다” (서울시, 8)라는 표현과 함께 주체로서의 시민의 등장을 강조함. 특히 시민 스스로 문화 감수성을 깨우고 생활 속 문화주체로 서는(서울시, 9) 것을 생활문화도시의 비전으로 전제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재차 드러냄. 이러한 비전은 2017년 추진방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단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예술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으로 전제되어 있고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자발적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기본권을 누리며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서울문화재단, 2018)으로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을 생활예술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전략을 제시함.
- 생활문화에 대해 제시되는 개념과 정책을 참고할 때, 생활문화는 시민의 주체적 등장 및 참여를 통한 일상적 예술활동을 핵심적 요소로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지 이때의 ‘예술활동’이 기존 예술장르 중심이라는 점을 볼 때, 시민이 일상 속에서 각자의 예술을 해석, 실험, 실행,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예술장르 활동을 더욱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라도삼은 2013년 문화정책 원리로 주장했던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관련, ‘문화민주주의’가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원리가 아닌 단편적 차원으로 해석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함. 이것은 현실정치와 만나면서 간편하게 소비되었는데 문화가 예술로 해석되고, 문화민주주의는 단지 누가 하느냐는 ‘주체’의 문제로 해석되었다(라도삼, 2018: 2)는 관점임.
- 이것은 누군가가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전형적인’ 예술관람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바꿨을 뿐, 예술을 강요하는 것은 똑같다고 강조함(라도삼, 2018: 2).
- 특히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의 시민을 예술활동 관심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활예술참여자, 생활예술활동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생활예술가로 성장하는 지원전략을 수립함.
- 그러나 장애인은 일반적인 문화활동, 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기 어려워 예술활동 관심자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함.

〈그림3-4〉 “천만시민 아티스타가 세계시민 생활예술가로!” Action Plan



* 출처: 서울문화재단(2018)

-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추진전략은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순환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특히 전문예술(전문예술가)-생활예술(아마추어 예술인)-지지기반(시민참여 문화활동)의 선순환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예술과 시민참여 문화활동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 예술가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서울문화재단, 2018).

- 결국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주체를 강조하지만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면 주체로서의 시민의 삶을 지지하기보다는 확장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예술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이것은 생활문화의 의미를 인간의 삶 속에 구현하기보다 예술 중심의 순환 체계를 정책적으로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함.

나. 장애인 생활예술의 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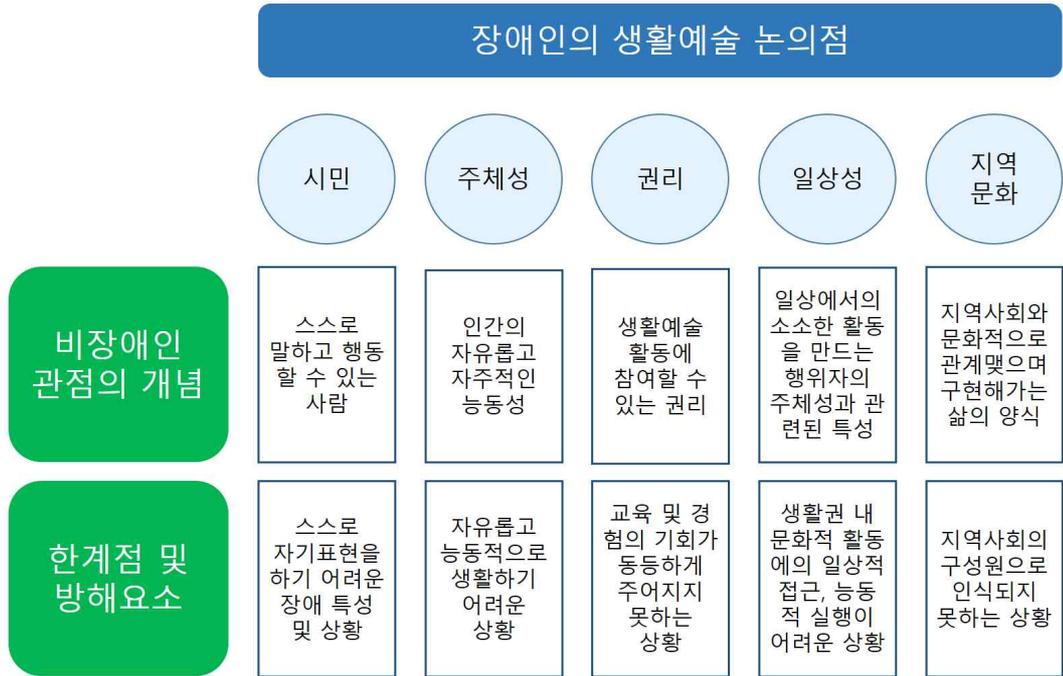
※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대상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며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예술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시민, 주체성, 권리, 일상성, 지역 문화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과 연관된 한계 및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것은 기존의 생활문화 개념이 전제하는 요소가 장애인의 삶 속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의미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경험 기회의 부족 등 일상 속 어려움이 그 해석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시민/주민: 생활예술 개념에서 강조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안에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이 실제로 예술활동 및 관련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식은 부족함.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예술 개념에서의 ‘시민’은 주체적인 판단과 실행을 통해 일상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강운주, 심보선 등은 시민을 아렌트(Hannah Arendt)가 이야기한 ‘활동적 삶(Vita Activa)’, 즉 개인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사회적 자격 요건과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음. 또한 아트리토텔레스가 정의하는 ‘말하고 행동’ 하는 존재로서의 시민도 강조하며 전체 공동체 내부의 한 장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주체성을 이야기함(강운주심보선, 2017: 38). 주민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예술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발견하고 창조한다(강운주심보선, 2017: 39)고 전제함. 그러나 장애인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자신을 보여주는 등의 능동적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도 많으므로 이어나 시민, 주민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주체성 : 기존의 생활예술 개념에서는 주체성을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있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것을 생활예술 개념에서의 핵심요소로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사회적 불평등의 이유로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예술활동을 선택, 경험하는 것은 어려움. 이에 따라 생활예술 개념에서의 핵심요소인 주체성과 자발성이 장애인의

삶과는 연결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비장애인의 주체적 표현방식이 일반화된 상황 안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의 주체성이 그 자체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오히려 자폐성 장애인이 표현하는 방식을 장애 증상의 일부로 해석하거나 주체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 밖에도 중증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언어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한 자기 표현을 타인이 주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경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넓은 범위, 개념의 주체성이 고려되어야 함. 중증 장애인을 고려할 경우 최소한의 생존 이외의 니즈need나 욕망까지도 포함해야 함(좌동엽, 본 연구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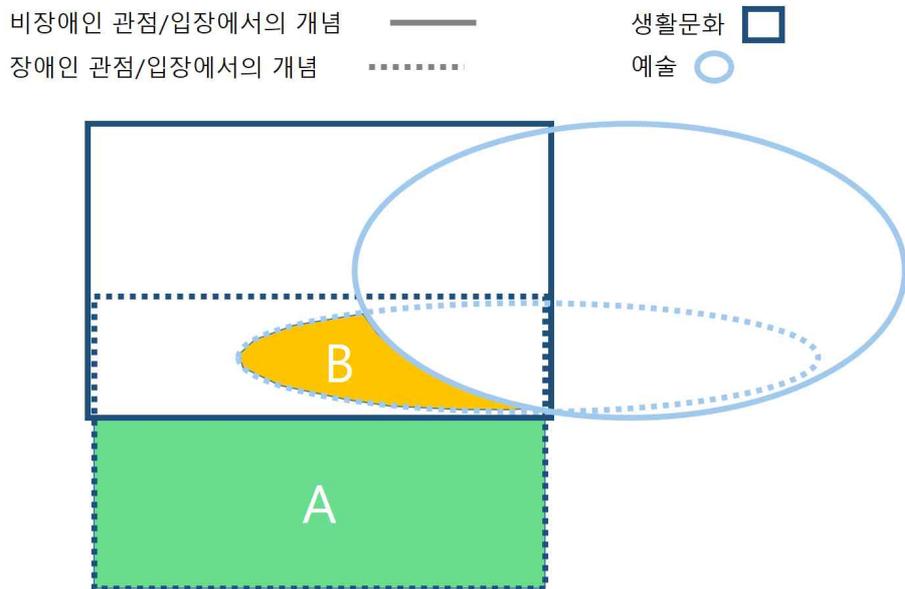
- 권리 : 기존의 생활예술 개념에서는 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에의 참여 가능성을 시민의 권리와 연결하여 말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기본적인 교육 및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못함.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 일상성 : 기존의 생활예술 개념에서는 시민의 소소한 활동에 대한 가치 부여를 전제로 주체적으로 일상을 만들어가는 행위자의 역량에 집중함. 그러나 장애인은 생활권 내에서 일상적으로 문화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일상적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어도 능동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
- 지역문화 : 시민이 지역사회와 문화적으로 관계맺으며 생산, 구현해나가는 삶의 양식으로 지역문화가 전제되어 있음. 예술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성과 연결되는지에 집중함. 그러나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지역사회와의 관계맺기, 일상적인 소통의 접점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화될 수 있음. 그러나 기존의 생활예술 개념이 강조하는 지역문화, 지역성은 이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참여 및 역량을 전제하고 있음.

<그림3-5> 장애인의 생활예술 논의점



-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 및 입장에 따라 생활예술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문화, 예술 개념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음.

<그림3-6> 장애인, 비장애인 관점/입장에서의 생활문화, 예술의 관점



A = 비장애인에게는 생활문화 또는 예술로 인지되지 않지만, 장애인에게는 명확히 생활문화의 영역인 것

B = 비장애인에게는 생활문화로 인지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예술의 영역인 것

- 기존의 생활예술 개념의 중심이 되는 비장애인의 관점으로 보면, 생활문화, 예술에 대해 접근하는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생활예술의 차별성을 경험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장애인에 비해 폭넓게 주어짐.
- 반면, 생활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활동의 가능 범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좁은 장애인은 다른 관점 및 입장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와 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게 됨.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활문화로 보기 힘든, TV시청 등도 생활문화(위 그림에서의 A영역)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 범위가 비장애인에 비해 특히 넓다는 것이 특징임. 또한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활문화이면서 예술이 아닌 활동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예술(위 그림에서의 B영역)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 이것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아마추어예술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예술 관련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술로 해석됨.
- 생활예술 개념이 생활문화와 예술과의 개념적, 해석적 차이를 바탕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 및 입장에 따라 생활문화와 예술이 다르게 개념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동시에 현재의 생활예술 개념이 모든 시민의 생활환경이나 관점을 전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정책적으로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화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장애인의 삶을 전제한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생활문화 개념으로부터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장애인과 생활예술 관련 접근성

※ 장애인의 생활예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생활권 안에서 일상적으로 문화생활, 예술, 생활예술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두고 ‘접근성accessibility’ 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가동성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접근성’ 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주체적 활동을 논의할 때 필수적으로 이야기되는 개념임. ‘접근성’ 은 보통 디자인이나 건축공학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를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나이, 지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할 때 사용함. 본 연구에서는 문화나 예술 관련 정보, 활동, 경험, 프로그램, 공간, 사업 등에 장애인이 접근 및 참여가 가능한지, 이를 통해 스스로 생활예술을 시도 및 실행 가능한지 논의하기 위해 사용함. 이에 따라 접근성을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서술함.

1) 정보 접근성

가. 배경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및 생활예술 참여 기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위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관련 정보를 원활히 얻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관련 활동 및 행사 정보를 물리적으로 얻는다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에서 관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언어, 자료 등의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

나. 개념

- 위의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접근성’ 이란 용어를 사용함.
- 정보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는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최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성 장치가 필요함. 정보 접근성 장치란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방식의 설명 등이 있음.

다. 생활예술 관련 논의 방향성

-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예술행위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논의.
-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화 및 예술 관련 정보의 범위에 대한 파악.
- 장애인이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혹은 보조자의 도움으로 선택,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파악.

* 정보 접근성 관련 일본 자료 : 『Access Arts 2007 장애가 있는 이의 예술문화 가이드』 소개 및 목차 부록 별첨

2) 시설 접근성

가. 배경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및 생활예술 참여 기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문화공간 및 행사장에 입장 및 접근 가능해야 하지만 서울시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공간은 많지 않음.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언제든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가 되어야 함.
- 특히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생활예술을 접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 외에도 지역 내의 모임공간, 카페, 교육공간 등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한 예술행위, 타인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 방문 등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개념

- 위의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 접근성’이란 용어를 사용함.

- 시설 접근성이란 특정 공간이나 건축물에 사람이 입장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질.
-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별 시설 접근성 장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휠체어가 입장 가능한 입구 및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나타내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 시설’이 마련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이 대표적인 공간임.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임. 비슷한 맥락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품, 시설, 서비스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배리어 프리’보다 확장된 개념임.

다. 생활예술 관련 논의 방향성

-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문화공간, 예술공간, 행사장 등에 입장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논의.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관련 대표적인 공간인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 도시의 구조 및 공간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의 법적 기준을 토대로 확인 가능.

3) 경험 접근성

가. 배경

-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이 예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문화공간에 접근 가능한지, 차원으로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과도 관련이 깊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공교육, 사교육,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접한 후 자신의 생활에서 상상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활동을 선택,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강력하고 획일화된 생활예술 지원 모델의 개발보다는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및 복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관점에서 다양한 모델 논의도 필요함(좌동엽, 본 연구 자문회의).
-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나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야 함.

나. 개념

- 위의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험 접근성’이란 용어를 사용함.
- 경험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타인과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전반의 자격을 갖춘 성질을 의미하며 본 연구를 통해 개념화함. 정보 접근성 및 시설 접근성의 개념을 포함하며 보다 일상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활동보조인과의 동행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념이지만 인간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다. 생활예술 관련 논의 방향성

- 생활 속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행하는 과정을 생활예술의 중심적 요소로 전제할 때 장애인에게는 경험 접근성이 마련되어야 생활예술에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음.
-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생활 속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
- 인간적 삶, 일반적 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생활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의 가능한 범위를 전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종합

-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에 주체적인 참여가 수월하지 못한 장애인의 입장으로 생활예술 개념을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삶을 위주로 개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문화적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생활문화 개념이 주체적 삶, 자발적 삶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적으로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화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장애인의 삶을 전제한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생활문화 개념으로부터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스스로 문화를 경험 및 형성해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해 나가야 함.

- 생활문화 사업 관련 당장의 전반적인 사업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실행 가능한 범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의 참여

제4장.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의 참여¹⁾

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의 참여 접근성 현황

1) 장애인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 사업 대상으로서 장애인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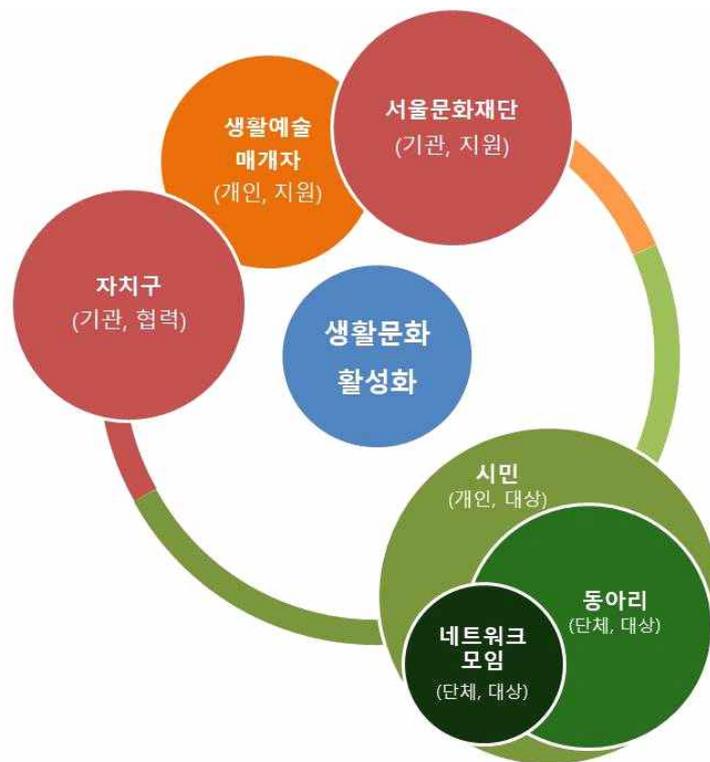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계획은 ‘시민’의 단계별 지원 전략(생활예술 관심자 → 생활예술 참여자 → 생활예술 활동가 → 세계시민 생활예술가)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시민은 ‘누구나’, ‘개인’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활예술의 개념 자체가 비장애인의 삶을 위주로 개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개념이 강조하는 주체적 삶, 자발적 삶 역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 상황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임.
- 생활예술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다양한 생활예술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 또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참여대상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는 명시만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계획에 장애인의 참여와 관련한 시설, 정보, 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참여 대상인 시민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민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업 내용의 점검은 물론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참여자 및 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을 재설계-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 본 장은 현장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직접 실행하며 참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생활예술매개자(FA)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설문응답, 인터뷰 내용을 다룸. FA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함. FA들은 지역과 장르별로 참여자들을 만나 그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한 행사(축제, 네트워크 모임 등)를 기획-진행하면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음. 따라서 FA들이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참여자들에 관한 경험과 생각을 묻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FA들이 직접 지역 내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시설 접근성을 조사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본 장에 정리함.

나. 사업 참여 형태와 역할 재고

- 사업 참여는 표면적으로 사업 대상자인 시민으로 표현되지만, 장애인의 사업 참여 확장을 위한 사업 개선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1) 사업 대상인 단체/개인, 2) 사업의 계획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개인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형태와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방안” 챕터에서 장애인 참여 접근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4-1>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참여 형태



○ 사업 참여1. 사업 대상

- 사업 계획서 상에는 ‘시민’ 개인으로 사업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은 지역 내에서 이미 생활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과 지역별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으로 단체의 형태로 띠고 있음.
- 네트워크 모임은 본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 연합 모임으로 지역별로 발굴된

동아리들이 정기(지역별 기간별로 차이 있으나 주로 월 1회)적으로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의 행사(연중 축제, 전시, 공연 등)를 자발적으로 기획-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주 사업 대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는 동아리들과 그 동아리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네트워크 모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사업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할 지점임.
-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동아리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에는 시설·정보·경험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성과인 네트워크 모임 역시 비장애인 중심의 동아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및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참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전략과 기존 네트워크 모임²⁾에 장애인 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 참여2. 사업 계획 및 운영 담당

- 사업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체 사업을 총괄 계획 및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과 개별 지역에서 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자치구청, 자치구 문화재단, 동주민센터 등 자치구 공공기관임.
-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은 서울문화재단에 의해서 발표되고 실행되며 세부적인 사업 시행 및 협조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대상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계획 수정·보완과 그에 대한 자치구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FA는 서울문화재단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기관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사업 대상인 동아리/네트워크 모임과 사업 운영 기관인 서울문화재단/자치구 사이에서 의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면서 사업 내용을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FA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 자치구와 별도로 <그림4-1>에 표시함.
- FA는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 참여자로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지역별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을 구축하고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FA의 역할과 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 사업 내용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임.

2) 네트워크 참여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 확인

2)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

가. 공간 이용자로서 장애인의 부재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부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거점을 공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임.
- 사업 대상은 일정규모(2019년도 기준 : 80㎡/160㎡) 이상의 유휴 공간을 보유 또는 운영하고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민간단체이며 조성 및 운영 원칙도 공지하고 있음.
- 공간 조성 및 운영 원칙에는 유휴공간을 개선(리모델링), 재구성(인증)해야 하며 전 세대 주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 및 주말 개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 을 지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와 “개방” 의 대상에 공간 이용자로서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의 공간 개선 유의사항에는 자산 취득 성격의 보수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며, 건물 연식 및 용도에 따른 건축법 등 시설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한다는 원칙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여부를 확인 및 개선을 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음.
- 공간 적합성에 관한 심사내용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안전 및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가”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접근성” 혹은 “편의시설” 은 특정 단체의 공간 독점 방지, 공간 대관 편의 증진, 공간 사용시간의 확장 등 모두 시설 접근성에 제약이 없는 비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의미하고 있을 뿐 이용자로서의 장애인의 접근성 또는 편의시설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들의 시설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 을 지향하면서 조성되고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간과하고 있는 시설 접근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함.

나.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 2017-2019년까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된 공간의 시설 접근성을 점검하기 위해 모집한 FA 5명과 협력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 22곳의 시설 접근성을 나눠서 조사함.

- 조사 기간 중에 시설 접근성 조사 방법, 참고 자료 등을 공유하는 사전 모임과 개별 조사 후 각자의 조사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결과 모임을 가짐.
- 조사 기간 : 2019.09. - 11.
- 조사자 : 강정아, 고륜호, 김예원, 김정주, 김제형, 임성현
- 조사대상 : 생활문화지원센터 22곳
- 조사 내용

〈표4-1〉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체크리스트 내용 구분

구분	조사 내용
건물 접근성	근접 지하철역, 가는 길, 주차 공간 유무 등
주출입구 접근성	높이차, 너비, 유도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유무 등
화장실 접근성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유무 등
복도 및 층간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복도/통행로 유효폭 확인 등
프로그램 공간 접근성	높이차, 너비, 이동 지원 인력 제공 유무 등

- 본 조사에 사용한 체크리스트는 <경기권역 영화관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2015)과 Oset프로젝트의 문화예술공간 시설 접근성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

*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체크리스트> 부록 별첨

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

- 생활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장애인이 센터를 방문할 경우, 조사 결과 전체 22곳 중에서 전반적으로 시설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센터는 3곳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설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혹은 이동 지원이 제공될 경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센터는 7곳이었음.
- 생활문화지원센터 22곳의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를 요약한 표는 본 챕터 마지막에 첨부하였음.

<표4-2> 장애인 시설 접근가능/접근 부분가능 생활문화지원센터

접근	센터명	지역구	주출입구	프로그램 공간	화장실	참고
1 가능	박미사랑마을회관 (석수역, 1.0km)	금천구	가능	가능	있음	- 가는 길:좁고 가파름 - 입구:유도블록/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내부 이동 지원
	성미산마을극장 (망원역, 0.5km)	마포구	가능	가능	있음	- 입구:유도블록 설치 - 내부 이동 지원
	답십리 도서관 (신답역, 0.6km)	동대문구	가능	가능	있음	- 외부 개방 안함
4 부분가능	행복마을마더센터 (신대방역, 1.2km)	관악구	가능	가능	없음	- 가는 길:좁고 가파름 - 엘리베이터/공간 유효폭 미달 - 내부 이동 지원
	생활문화지원센터 마루 (창동역, 2.0km)	도봉구	가능	가능	있음	- 엘리베이터/공간 유효폭 미달
	문화정원 아트홀 (독산역, 1.3km)	금천구	가능	가능	없음	- 입구:유도블록/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내부 이동 지원
	잠실 생활문화지원센터 (잠실역, 0.3km)	송파구	높이차 (6cm)	높이차 (8cm)	없음	- 내부 이동 지원
	성북생활문화지원센터 (한성대입구역, 1.1km)	성북구	가능	불가	있음	- 가는 길:가파름 - 프로그램 공간 변경 시 접근가능 - 내부 이동 지원
	노원드림생활문화지원 센터	노원구	가능	가능	없음	- 가는 길:가파름

10	(하계역, 2.7km)					
	별별공간 (구산역, 0.8km)	은평구	가능	부분 가능	없음	- 내부 이동 지원

○ 접근 가능 센터 특징

- 장애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한 공간 3곳은 자치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미사랑 마을회관, 답십리 도서관 2곳과 설립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성된 민간 운영 공간인 성미산마을극장 1곳.
- 답십리 도서관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이외에는 외부 공간 대여를 하지 않고 있어 시설 접근성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장애인이 공간 이용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조사 갔을 때 만난 답십리 도서관 직원이 말하기를 자체 프로그램 이외에는 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일하면서 장애인을 만난 적은 없었다고...”

- 조사자 후기 중

- 시설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들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이미 시설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이었으며 또한 본 조사 기간 동안 현재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와 별개로 지역에 있는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배리어 프리 인증 건물)을 찾아서 공유한 조사자(FA)도 있었음.
- 따라서 시설 접근성이 확보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 공공 공간을 발굴해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지정 및 조성하고 그에 관한 정보 구축하는 내용을 지원사업 내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 부분 접근 가능 센터 특징

- 부분적으로 시설 접근이 가능한 공간 7곳 중 일부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 내에 장애인 시설 접근성 개선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사업 범위 내에서 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5곳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 휠체어 이용자 접근이 불가능한 곳(2층)에 프로그램 공간이 있는 성북생활문화지원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공간을 접근 가능한 공간(1층)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안으로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생활문화지원센터 마루의 경우 건물 주출입구와 프로그램 공간 입구의 높이차가 없

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와 프로그램 공간의 입구가 권장 유효폭에 미달되어 부분 가능으로 표시하였으나, 프로그램 공간 입구 확장 공사 혹은 요청 시 이동 지원이 가능한 상근 인력 배치와 이용 가능한 수동휠체어를 마련할 경우 시설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시설 개선을 위한 참고 1. 건물 접근성

-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자치구 생활권 내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그 조성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내부 시설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 중에서도 찾아가는 길이 좁고 가파른 경우가 있으며, 전체 생활문화지원센터 22곳 중 절반 정도의 공간이 좁은 골목길, 가파른 오르막에 위치해 있거나 공간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자들도 센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향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선정하거나 발굴할 경우 센터 공간이 위치한 건물과 대중교통 정류장 사이의 거리, 가는 길(인도)의 너비, 가파름, 유도블록 설치 등을 파악해야 하며, 그에 따른 길 안내와 가는 길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도 필요함.

○ 개선을 위한 참고 2. 유도블록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전체 혹은 부분 접근 가능한 시설 10곳 중 3곳만이 건물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었고 2곳만이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 유도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해 비교적 쉽게(건물 리모델링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접근성 개선 사항임.
- 이와 더불어 공간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음성 안내 자료로 마련하는 것도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접근성 개선사항임.

○ 개선을 위한 참고 3. 안내 및 이동 지원 인력 배치

- 공간을 처음 방문한 비장애인에게 공간 이용 안내자가 필요하듯이 장애인들에게도 개별 장애 유형에 맞는 공간 이용 안내와 지원이 필요함.
- 시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간 운영 및 주 이용 대상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할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안내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비로소 시설 접근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시설 접근 가능/부분 가능한 생활문화지원센터 10곳 중에서 장애인의 공간 안내 및 이동 지원을 전제로 한 공간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없었지만, 장애인 이용자가 방문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이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다고 답변한 공간은 7곳이었음.
-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공간 운영을 위한 전용 인력의 인건비 편성을 필수 사항으로 변경하고(현재 선택 사항) 전용 인력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공간 내 이동 지원 및 이용자 응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

- 공간 이용자로서 장애인 전제 :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이용자로서 장애인을 전제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사업 내에서 마련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권장 또는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이나 프로그램 (접근성)이 ‘생활문화지원센터’ 선정할 때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 조사자 후기 중

- 시설 접근 가능 공간 발굴 및 접근성 개선 계획 포함 : 시설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을 발굴하는 것과 시설 접근성이 안 되는 공간의 경우 시설 개선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될 필요 있음.
- 안내 및 이동 지원 인력 배치 : 시설 접근성이 확보된다고 해도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내 혹은 이동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과 장애인 이용자 응대에 관한 이해가 있는 인력이 공간마다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내 인건비 편성 및 인력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4-3〉 생화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 요약

접근	센터명 (지하철역, 거리)	지역 구	주출입구 접근성 (높이차, 계단 유무)	프로그램 공간 이동/내부 접근성	장애 인 화장 실 유무/ 접근 성	참고 (가는 길, 이동 지원 가능 여부 등)
1 부 분 가 능	행복마을마 더센터 (신대방역, 1.2km)	관악 구	높이차 있 음 (4cm 계단 2개)	- 엘리베이터 있음/ 유효폭 미달(75cm) - 공간 입구 유효폭 미달(75cm)	없음	- 좁은 인도, 가 파른 오르막길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2 불 가	공유공간 봄 (신림역, 1.9km)	관악 구	높이차 있 음(10cm)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공간 입구 유효폭 미달(82cm)		- 좁은 인도
3 불 가	신림다락 (봉천역, 1.8km)	관악 구	높이차 있 음 (21cm계단 6개)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좁은 인도 - 신림다락 표지 판 없어 찾기 어 려움
4 가 능	박미사랑마 을회관 (석수역, 1.0km)	금천 구	높이차 없 음 유도블록 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설 치	- 엘리베이터 있음 - 공간 내부 접근 가능	있음	- 좁은 인도, 가 파른 오르막길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5 부 분 가 능	문화정원 아 트홀 (독산역, 1.3km)	금천 구	높이차 없 음 유도블록 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설	- 엘리베이터 있음 - 공간 내부 접근 가능	없음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6	가능	성미산마을극장 (망원역, 0.5km)	마포구	치 높이차 없음 유도블록 설치	- 엘리베이터 있음 - 공간 내부 접근 가능	있음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7	불가	송파구청 지하 생활문화공간	송파구	높이차 있음 (지하공간, 계단이용) 유도블록 설치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없음	- 센터 문 잠겨 있음
8	부분가능	잠실 생활문화지원센터 (잠실역, 0.3km)	송파구	높이차 있음(6cm)	- 1층 공간/ 입구 높이차 있음(8cm)	없음	- 내부 공간 협소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9	불가	수수헌 (동묘앞역, 0.4km)	종로구	높이차 있음(15cm)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2층/ 입구 높이차 있음(7cm)	없음	- 민간 (주민자치) 공간
10	부분가능	성북생활문화지원센터 (한성대입구역, 1.1km)	성북구	높이차 없음 유도블록 설치	- 엘리베이터 있으나 2층은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2층/ 입구 유효폭 미달(80cm)	있음(1층) 대소변칸 깊이 미달 (70cm)	- 가파른 오르막길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 프로그램 공간 1층으로 변경 시 접근 가능
11	불가	미인도 (성신여대입구역, 0.5km)	성북구	높이차 있음 (15cm 계단 3개)	- 1층 공간 / 입구 및 내부 높이차 있음	없음	
12	불가	경춘 숲속의 집 (하계역, 0.4km)	노원구	높이차 있음(계단)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입구 높이차 있음	없음	

13	부분 가능	노원드림생 활문화지원 센터 (하계역, 2.7km)	노원 구	높이차 없 음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1 층 / 입구 높이차 없음	없음	- 가파른 오르막 길
14	가 능	생활문화지 원센터 마루 (창동역, 2.0km)	도봉 구	높이차 없 음	- 엘리베이터 있음/ 유효폭 미달(78cm) - 프로그램 공간 지 하/ 입구 유효폭 미달(83cm)	있음	-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공간 입구 유효폭이 권장사항 미달 이지만, 접근 이 불가능한 전동 휠체어 이용자 올 경 우 대안(수동 휠체어 구비) 과 이동 지원 인력 있을 경 우 공간 접근 가능
15	가 능	답십리 도서 관 (신답역, 0.6km)	동대 문구	높이차 없 음	- 엘리베이터 있음 - 공간 내부 접근 가능	있음	- 자체 프로그램 이외에는 공간 개방 안함
16	부 분 가 능	별별곳간 (구산역, 0.8km)	은평 구	높이차 없 음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1 층, 지하 1층	없음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17	불 가	오류골 수다 방 (오류동역, 0.4km)	구로 구	높이차 없 음 유도블록 설치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2 층	있음(1 층)	- 건물 주출입구 와 1층은 접근 이 가능하지만 영업 중인 카 페만 있음
18	불 가	생활문화지 원센터 놀자 (대림역, 1.2km)	구로 구	높이차 있 음(3cm)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입 구 높이차 있음 (15cm)	없음	- 시장과 상가 사이에 위치 찾 기 어려움 - 요청 시 공간 내부 이동 지원

							가능(직원)
19	불가	도림천생활문화지원센터(도림천역, 0.43km)	구로구	높이차 있음(15cm)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입구 높이차 없음	없음	- 아파트 내부 상가에 위치
20	불가	양천생활문화지원센터(신정네거리역, 1.2km)	양천구	높이차 있음(5cm)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입구 유효폭 미달(87cm)	없음	
21	불가	생활문화센터 일상(동묘앞역, 0.84km)	중구	높이차 있음(계단)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 프로그램 공간 입구 높이차 있음(15cm)	없음	- 경로당을 개조한 공간
22	불가	생활문화지원센터예감터(약수역, 0.8km)	중구	높이차 없음 유도블록 설치	- 엘리베이터 없음/ 계단 이동	있음 (잠겨 있음)	- 가파른 오르막길

3) 생활예술 활동의 장애인 참여 현황 : 생활예술매개자(FA) 설문 결과³⁾

가. FA 설문 목적 및 내용

- FA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각 분야의 현장에서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행위자이자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의 목격자이기도 함.
- 현장에서 FA가 장애인을 만난 경험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자료가 됨.
- 따라서 FA를 대상으로 장애인 참여자 목적 및 교류 경험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 조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함.
- 온라인 설문 내용은 생활예술 활동에서 장애인을 만난 경험, 장애인을 만난 생활예술 활동의 종류, 장애인의 참여 형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 개선이

3)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서의 장애인 참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가 부재함. 이것은 참여자의 장애유무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임. 이에 따라 FA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자 하였음.

필요한 부분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FA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설문기간 : 2019.10.26. - 11.30.
- 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양식 활용
- 설문내용

<표4-4>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 조사 온라인 설문 내용 구분

구분	설문 내용
FA 기본 정보	담당 지역구, FA경력 등
장애인 참여 목적 및 교류 경험	장애 유형, 활동 종류, 참여 형태, 본인 역할 등
장애인의 참여 방해요인	장애인 참여 방해 요인과 그 원인 등
장애인의 참여 방안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활동 경험 유무, 장애인식개선 교육 참여 유무,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 사항 확인 등

- FA 설문 답변 내용을 정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사업 참여 현실과 한계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확장시킬 방안을 고안하고자함.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조사> 온라인 설문 내용 부록 별첨

나. 설문 응답자 및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 총 응답자 수 : 41명 (2019년 FA 총인원 64명)
- FA 활동 경력 구분 : 전체 응답자 중 FA 활동 1년 차(2019년 FA 활동 첫 해)는 20명, 2년 차(2019년과 2017 혹은 2018년 FA 활동)는 12명, 3년 차(2017-2019년 FA 연속 활동)는 9명이었음.

〈표4-5〉 응답자 경력 구분

연차	인원 수
1년 차	20
2년 차	12
3년 차	9
합계	41

- FA 종류 구분 : 총 응답자 41명 중 지역매개자(생활문화 거버넌스25)는 31명, 장르 매개자(생활예술 댄스, 오케스트라, 동아리 네트워크, 일상예술)는 10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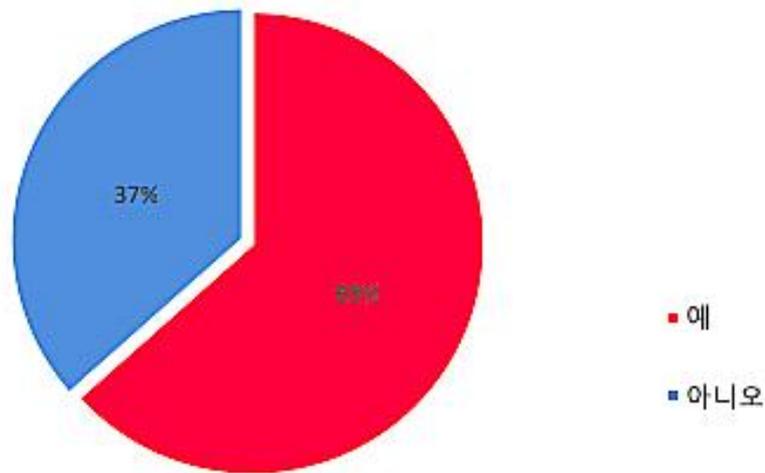
〈표4-6〉 응답자 역할 구분

지역 / 분야		인원	
지역 매개자 (생활문 화 거버넌 스 25)	용산구	2명	
	강남구	1명	
	강동구	1명	
	강북구	1명	
	강서구	2명	
	관악구	2명	
	광진구	2명	
	구로구	2명	
	금천구	1명	
	노원구	1명	
	동대문구	1명	
	동작구	2명	
	마포구	1명	
	서대문구	2명	
	성동구	1명	
	송파구	1명	
	양천구	1명	
	영등포구	1명	
	은평구	2명	
	종로구	1명	
	중구	1명	
	중랑구	2명	
	장르 매개자	생활예술 댄스	1명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3명
		동아리 네트워크	3명
일상예술		3명	
합계		41명	

-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별개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3%(26명)임.

<그림4-2> 응답자의 사업 외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경험

- 생활예술매개자 활동과 별개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표4-7> 응답자의 사업 외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종류

구분	역할	활동 종류
공연 제작 및 워크숍	기획·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연극 프로젝트
		장애인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및 연극 만들기
		장애인과 함께 뮤지컬 공연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지체장애를 가진 퍼포머와 협업
교육 프로그램	강사	장애인종합복지관 원예치료수업 보조강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미술교육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장애인 참여
		복지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타악기 수업 보조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생태예술 강의 발달장애인 음악치료 성인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음악수업 미술관 발달장애 성인 미술수업 강사보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미술프로그램 청각장애인 무용 수업 장애인 특수학교 예술교육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인 움직임 수업 발달장애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장애아동 복지시설 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청소년 연극수업
동아리	참여	장애인 동아리 활동에 참여 참여 동아리에 장애인 참여자가 있었음
봉사 활동	참여	공연 봉사 등

- 장애인 대상 혹은 참여 교육 프로그램, 공연 제작 및 워크숍 프로그램, 동아리,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 확장을 위해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온라인 설문 주관식 답변으로 제출함.
- 주관식 답변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들과 구체적으로 서술된 필요 사항들에 관한 보다 상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몇몇 응답자들에게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4명의 FA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음.

<표4-8> 심층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이름	지역/분야	경력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경험 유무	
			(* 본 사업과 별개의 활동)	
김영미	동아리 네트워크	1년	있음	장애인 특수학교 예술교육, 장애인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 강사
이혜령	영등포구	1년	있음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임성현	광진구	1년	있음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연 및 워크숍 참여
최미나	중랑구	3년	있음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멘토가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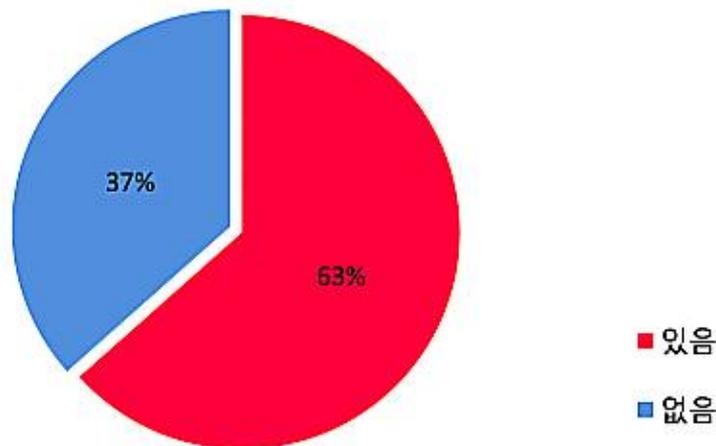
- 온라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 내용에서 장애인의 사업 참여 및 교류 경험 현황과 향후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들을 확인하고자 함.

다. 장애인의 사업 참여 목적 및 교류 경험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 대상인 ‘시민’ 이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는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 혹은 축제, 전시 등과 같은 결과 발표 행사이며, FA는 동아리 활동 및 행사의 조직, 기획,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FA가 각 활동에서 장애인 참여자를 만난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4-3> 사업 내 장애인의 활동 참여 목적 경험

- 생활예술 활동(동아리, 축제, 행사, 모임 등)에서 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관람객, 참여자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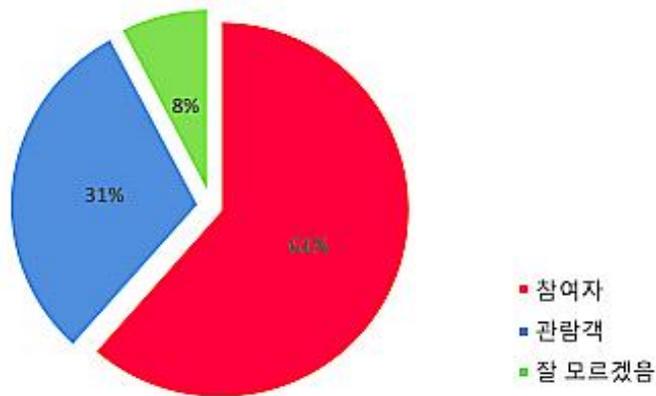


- 응답자 중 사업 내에서 장애인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FA는 26명(63%)이었으나 그 중 8명은 참여 형태가 축제, 전시와 같은 행사의 ‘관람객’ 이었다고 응답했으며 2명은 ‘잘 모르겠음’ 을 선택하였으므로, 사업의 ‘참여자’ 로서 장애인을

목격한 FA는 16명이었음.

<그림4-4> 사업 내 장애인의 활동 참여 형태

● 장애인의 활동 참여 형태는 어떠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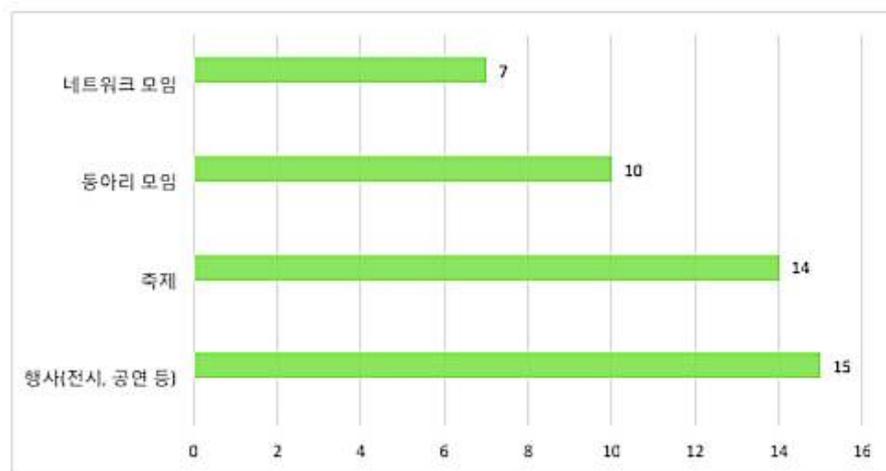


- 응답자가 목격한 장애인의 참여 활동 종류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생활예술 관련 연합 행사(전시, 공연 등)와 축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아리 모임과 네트워크 모임이었음.

<그림4-5> 사업 내 장애인 참여 활동 종류

● 장애인을 만난 생활예술 활동의 종류는 무엇이었나요? (복수 응답 가능)

(단위:명)



- 목격한 참여 장애인이 속한 단체(기관, 동아리 등)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응답자 16명 중 8명이 참여 장애인이 속한 단체를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장애인

관련 기관이라고 답변했음.

- 장애인 참여를 목격한 활동의 종류는 지역 내 동아리들이 전반적으로 모이는 축제, 전시, 공연 등의 연중행사였고 참여 장애인이 속한 단체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관련 기관이었음.

“FA를 하며 느낀 것이지만, 복지관 소속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동아리’는 존재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섞인 동아리는 찾기 어려웠다. 다양한 생활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해도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구석 또한 존재했다. ‘동아리’라는 특성상 한번 결성이 되면 멤버의 이동이 잦지 않고 ‘친목’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타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다.”

- 응답자의 주관식 답변 내용 중

“(사업 기간 내 장애인 참여자를 만난 동아리로 오카리나 동아리와 밴드인데, 둘 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참여자가 있는 동아리였나요?) 다 비장애인이고 딱 1분(장애인). ... 오카리나 동아리는 복지관 오카리나 강습이 동아리로 참여한 것이었고 ... 밴드는 지체장애가 있는 분이 네트워크 모임에 오셔서 보컬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 아주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어야 뭔가가 이루어지고.”

- 영등포구FA 이혜령 인터뷰 내용 중

- 위 응답자의 주관식 답변과 이혜령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사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장애인 참여 동아리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는 거의 부재함.
- 또한 본 사업의 핵심 단위인 네트워크 모임에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경우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거버넌스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동아리라는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 다른 축제 같은 곳에서 장애인 동아리가 공연하는 걸 종종 봐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공연한다고 하면 좋게 봐요.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에서는 달라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요. (장애인이) 회의를 하러 오려면 현재로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되고 간접 지원일 뿐인데. ...재단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민간 동아리들이 자기들끼리 건전한 협력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촘촘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어렵죠). ...제가 장애인 동아리를 발굴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동원되는 느낌이 싫어서였어요.”

- 중랑구 FA 최미나 인터뷰 내용 중

“(올해 사업 초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을 만났는데 여러 활동에 의욕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 첫 네트워킹(네트워크 모임) 때 그래도 혹시 주변에 물어보고 개인 참여자라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제안해주시면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님이랑 소장님이랑 오셨어요. 첫 번째 네트워킹 때. ...그날 담당자분이 (센터에 오는) 어떤 한분이 여기를 너무 오고 싶어 하신다고 이런 생활문화 활동을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서는 못하니까 네트워킹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같이 하고 싶고 행사도 오고 싶었는데 활동 보조인(이 없기) 때문에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고 있다고 ...그 이후로 네트워크 모임에 오시진 않았어요. ...그 후로 사업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나 내용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나중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기에는 여러 한계들이 있었어요.”

- 광진구FA 임성현 인터뷰 내용 중

- 최미나, 임성현 FA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에서 동아리 연합 축제와 같은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동아리 교류 모임인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거의 없는(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시설·정보·경험 접근성의 한계 상황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축제, 전시, 공연 등과 같이 본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연중행사에만 장애 관련 기관의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참여가 본 사업이 제안하는

‘시민’의 자발적, 주체적 생활문화 활동의 영위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장애인의 사업 참여가 거의 없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류가 저조한 현황과 조건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이 단지 참여자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한 설계”를 통해 이뤄져야함.

라. 장애인 사업 참여를 위한 개선 방안 : 온라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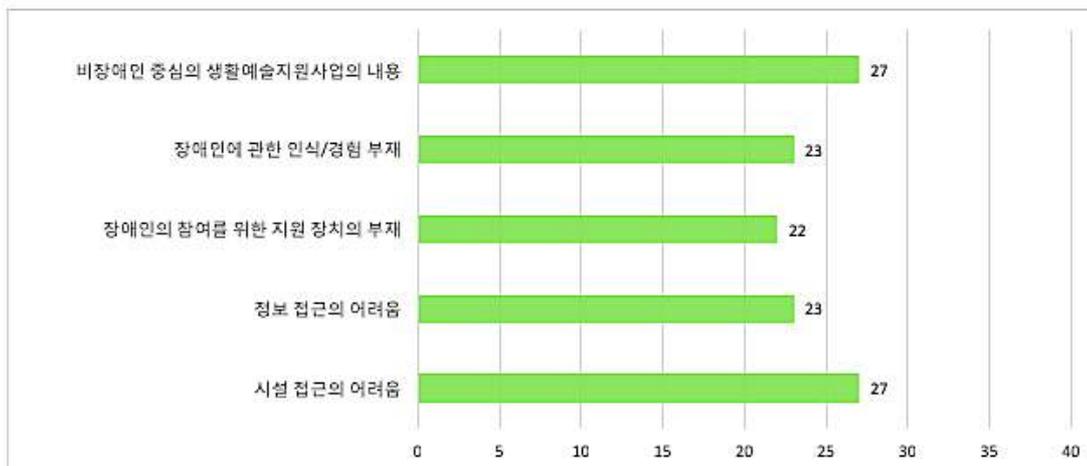
○ 장애인의 사업 참여 저조 이유와 개선 방안

- 장애인의 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묻는 객관식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가장 많이 선택된 답변은 “시설 접근의 어려움”과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 예술지원사업의 내용”(27명)이었으나 “정보 접근의 어려움”(23명), “지원 장치의 부재”(22명), “장애인에 관한 인식/경험 부재”(23명) 답변수와 큰 차이는 없었음.
- 응답자들은 본 사업에서 장애인 참여 저조 원인을 시설/정보 접근성의 한계 및 지원 장치의 부재라는 사회-제도적 차원, 장애인에 관한 인식과 경험 부재라는 문화적 차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장애인 참여자가 없다는 사업 내부적 차원 모두에서 고루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4-6> 장애인의 사업 참여 저조 원인

- 장애인의 생활예술활동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단위:명)



- 장애인의 생활예술활동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관한 추가 주관식 질문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의 답변들을 사회-제도적, 문화적, 사업 내부적 차원으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4-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개선 사항

장애인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개선 사항	
사회/제도적 차원	시설 및 정보 전반의 접근성 개선
문화적 차원	장애인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장애인에 관한 인식 개선
사업 내부적 차원	비장애인 중심의 사업 내용 개선 (사업에서 강조하는 ‘자발성’에 다른 관점 필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생활문화 지원 사업 설계 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필요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직접 지원 필요(이동 및 활동 지원 등)

- 응답자들은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 내부적 차원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개선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언급하면서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내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서술해주었음.
- 응답자들은 사업 내 장애인 참여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과 추가적인 프로그램(교류, 교육)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변화에서부터 사업의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시민의 ‘자발성’에 대한 제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업 내용 변경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해줌.

○ 장애인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장애인의 사업 참여 저조 원인을 묻는 질문과 더불어 FA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FA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과 그 외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 FA에게 추가적으로 필요 사항을 묻는 주관식 질문을 했고 답변은 다음과 같았음.

〈표4-10〉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의향

	인원 수	참고
예	33	
아니오	4	소통 방법에 관한 교육 필요 장애에 관한 진지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필요
기타	4	교육 내용 및 강사진 등 확인 후 결정 FA보다 동아리 참여자에게 필요 인식 개선 교육보다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
합계	41	

- 응답자 중 33명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개설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아니오” 라고 답변한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 없다고 아니라 보다 심층적이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으며 추가의견을 위 표와 같이 제출함.
-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덧붙여 현장에서 장애인의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FA에게 필요한 추가 사항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구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4-11〉 장애인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장애인 인식 개 선 교육 에 관한 추가 의 견	대상 확장	담당 공무원, 구청 및 재단 직원과 함께 공동 교육 필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참여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공동 교육 필요) 네트워크 모임 참여자(동아리) 대상 교육 필요
	내용/방식 제안	기본 인권 관련(성차별 등) 교육 필요
		장애인 생활예술 활동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교육
		시기적으로 FA 오리엔테이션 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함시키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단계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필요(단기간에 불가능함)
		장애인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워크숍 시행 (예 : 행사 기획 시 체크해야할 목록 정리 -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공간 여부 확인)
정보 제공	지역 내 장애인 접근 가능한 공간 정보
	장애인 지원 가능 사업 등에 관한 정보
실질적 지원	장애인 참여자 직접 지원 시행 (시설, 지원 장치, 이동 및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참여(접근성 확보) 가능한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
별도 기획 필요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 및 욕구 조사
	장애인 참여 동아리 발굴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아리 및 생활예술 활동 교류의 장 : 장기적으로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 필요

- 여러 응답자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추가 의견으로 교육 대상을 재단 직원 및 구청 및 지역 재단 직원까지 확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안함.

“사업 계획을 짤 때, 구마다 다르긴 한데 FA에게는 권한이 없어서 혼자서는 못하고 결국 직원을 설득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해요. 장애인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싶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는데 공무원이나 재단 직원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아예 시도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광진구FA 임성현 인터뷰 내용 중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FA가 받아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FA는 참여자들과의 접점은 많지만 권한이 많지 않잖아요. ... 사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예산도 정해져 있고요.”

- 영등포구FA 이해령 인터뷰 내용 중

- 임성현과 이해령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장에서 사업 대상자를 만나는 것은 FA이지만 사업의 계획 및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서울문화재단, 사업 시행 시 협력 기관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담당자들도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 참여자들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음으로서 장기

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함.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기 및 방식에 관해서도 유의미한 답변들이 있었음 1) 교육 시기 : 사업 시작 단계인 FA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을 실시해 사업 초기에 장애인에 대한 공통의 정보 혹은 감수성 기반 마련 2) 교육 방식 : 장애인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크할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 가이드를 FA와 재단, 자치구 담당자들이 함께 작성해보는 워크숍을 교육에 포함.
- 그 외 응답들에도 FA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담겨 있었으며 현 사업 계획 내에서도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었음.
- 장애인에게 지역 내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장애인 참여자들에게 직접 지원(시설, 장치 이동 및 활동 지원 등) 제공 등은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겠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따로 연락이 간다든가. 적어도 포스터에 조그맣게 내용이 들어간단다든가. 다들 내가 가도 될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한테 피해 줄까봐. 그런 마음을 허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영등포구FA 이해령 인터뷰 내용 중

- 특히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 및 욕구에 관한 조사는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사실 처음 생활예술 쪽에서 장애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선부르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쪽도 처음엔 공연 같은 걸 보여주는 형태에서 예술 교육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활예술까지 도달한 거고. ...약간 선부르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장애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선천적, 후천적도 있고.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다고도 생각해요. 비장애인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동아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데. 관계를 맺지 않아도 행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는 게 즐거운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한테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게 옳은 걸까 싶기도 하고.”

- 동아리 네트워크FA 김영미 인터뷰 내용 중

- 김영미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 유형 및 경험에 따라 장애인이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방식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사업 기획이 필요함
-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식(동아리 및 네트워크 모임 중심, 지속적인 참여와 결과 발표가 가능한 비장애인 중심)에서 배제되어온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변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이 사업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시민도 굉장히 뻥뻥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퇴직하고 취미 활동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려놓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고. 그러면서 적게 참여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사업이 진행될수록 소외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의도와는 다르게. 경계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예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 참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사업도 그런 경계를 허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생활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 영등포구FA 이혜령 인터뷰 내용 중

- 위 인터뷰 내용처럼 사업 대상의 주류 혹은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 이외의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 속도 등이 반영된 별도의 사업 기획과 더불어 생활 예술 활동의 경계 확장, 참여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예술 활동을 매개로 서로 만나고 이해하는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정량적 성과 또는 결과 발표 중심의 모임이 아닌 일상적인 교류의 장을 사업 내에 설계하는 것도 필요함.

“퇴직하고 취미로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공연한 것을 엄청 뿌듯해 하세요. 그런 거(봉사)에 의미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장애인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오카리나 동아리가 카페에서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카페에 돌계단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 참여자 분은 그걸 모르고 오셨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기는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연 팀끼리 만난다든가. 어떻게든 (장애인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영등포구FA 이혜령 인터뷰 내용 중

-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조사 결과,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FA 온라인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챕터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애인 참여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자 함.

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애인 참여 접근성 개선 방안

1) 사업의 단계적 개선 필요

- 사업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사업 참여 대상에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일반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언급되는 ‘시민’, ‘누구나’ 라는 전제만으로는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사업 대상자 양 쪽 모두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야함.

“어떻게 보면 저도 장애인 참여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너무 당연하게. ... 장애인 예술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문화예술 관련한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동아리 네트워크FA 김영미 인터뷰 내용 중

-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정보·시설·경험 접근성 개선 사항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과정 필요.
- 또한 정보·시설·경험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애와 생활예술에 관해 종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 필요.

가. 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

<표4-12> 정보 접근성의 단계적 개선 방안

1단계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생활예술 사업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의를 할 경우 답변할 수 있는 자문인력 확보- 생활예술 사업에 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방식의 설명 등)를 포함한 사업 안내 자료 마련- 지역 내 시설 접근이 가능한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장애인 참여 가능한 생활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구축
------------	---

	<p>및 적극적인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대상 정보 접근성 관련 교육 시행
2단계 (2-3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생활문화 사업 내 참여를 요청할 경우 안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및 자문인력 마련 - 지역 내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생활예술 프로그램의 참여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 -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대상 정보 접근성 관련 교육 의무화
3단계 (4-5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내 및 참여 전반에 관한 정보 접근성 체계 구축 - 지속적인 정보 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자문단 간 안정적인 소통 및 논의 체계 구축

나. 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표4-13〉 시설 접근성의 단계적 개선 방안

1단계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생활예술 활동의 사례 발굴 및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자문인력 확보 - 장애인 참여 동아리를 포함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들의 기초 수요 조사 시행
2단계 (2-3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경험 및 특성에 맞춘(비장애인 중심의 일상성, 자발성, 주체성이 아닌) 생활예술 활동 사례 조사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에 관한 사례 및 기초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행사 설계 - 장애인이 생활예술 관련 참여 의지가 있으나 이동 및 활동 그리고 경험 부족으로 참여의 어려움이 있을 경

	<p>우 지원 인력 및 자문인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대상의 경험 접근성, 장애인 식개선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의무화
3단계 (4-5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예술 활동 사례 아카이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장 - 지속적인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을 위한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자문단 간 안정적인 소통 및 논의 체계 구축

다. 경험 접근성 개선 방안

<표4-14> 경험 접근성의 단계적 개선 방안

1단계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생활예술 활동의 사례 발굴 및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자문인력 확보 - 장애인 참여 동아리를 포함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들의 기초 수요 조사 시행
2단계 (2-3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경험 및 특성에 맞춘(비장애인 중심의 일상성, 자발성, 주체성이 아닌) 생활예술 활동 사례 조사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에 관한 사례 및 기초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행사 설계 - 장애인이 생활예술 관련 참여 의지가 있으나 이동 및 활동 그리고 경험 부족으로 참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 인력 및 자문인력 확보 -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대상의 경험 접근성, 장애인 식개선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의무화
3단계 (4-5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예술 활동 사례 아카이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교류

할 수 있는 기회 확장

- 지속적인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을 위한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자문단 간 안정적인 소통 및 논의 체계 구축

2) FA 역할 및 역량 개발

가. FA 역할 확장

- 장애인 FA 선정 : 현 사업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각 단계별 개선 방안들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재단, 자치구, FA, 사업 대상자들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할 장애인 당사자 FA 필요.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 및 욕구 조사 : 기존 FA의 과업에 동아리 및 공간 발굴이 포함되었듯이,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1단계와 2단계 기간 동안 FA가 지역의 장애인 참여 동아리 및 생활예술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할 필요 있음(혹은 해당 역할을 담당할 FA 추가 선정).

나. 교육을 통한 FA 역량 개발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혹은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 교육을 사업 초기에 FA뿐만 아니라 재단 및 자치구 직원이 함께 듣도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포함(향후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비장애인 참여자에게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확장할 필요 있음).
- 정보·시설·경험 접근성에 관한 교육 :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설·경험 접근성에 관한 개념 및 조건에 관한 교육 시행.
- 정보·시설·경험 접근성에 관한 워크숍 :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1) 지역 내 공공공간의 시설 접근성을 체크하는 워크숍 2) 장애인과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유의해야하는 혹은 필요한 사항을 재단, 자치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해보는 워크숍 추진.

<표4-15> FA 역량 강화 워크숍

워크숍 종류	내용
시설 접근성 체크	지역 내 공공 공간의 시설 접근성 체크 워크숍 (시설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접근 가능 공간 발굴 및 개선 사항 확인)
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 계획 및 운영 유의 사항 가이드라인 작성 워크숍 1) 프로그램 및 행사(축제, 전시, 공연 등)의 장소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한 공간인가? 2)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참여를 위한 이동 및 활동 지원이 제공되는가? 2)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한 정보가 전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방식의 설명 등)로 안내되는가?

제5장. 참고사례

제5장. 참고사례

1. 국내사례

1) 인포숍카페별꼴

가. 활동의 맥락

- 서울에 위치한 인포숍카페별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 2011년 비영리단체 장애인문화예술관이 기획함. 이후 운영을 현재의 매니저들에게 위탁함. 처음에는 카페별꼴이라는 이름의 문화예술카페로 운영되다, 2015년부터 인포숍카페별꼴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문화예술관은 2008년 노들장애인야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한국의 진보적인 장애인 운동의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중증장애인 극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전문예술단체.
- 한국의 진보적 장애인 운동은 다른 나라의 장애인 운동과 비교해 다른 소수자 인권 운동과의 연대가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빈곤 운동, LGBT 운동과의 연대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가 드물.
- 또한 한국의 진보적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의 ‘탈시설’에 주목, 장애인이 시설에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자립해 비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것을 큰 운동의 방향으로 하고 있음.
- 인포숍은 아나키즘적인 사회운동과 관련된 정보(info)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 말로 주로 90년대와 2000년대 북미와 유럽에서 통용됨. 사회운동과 관련된 이벤트와 워크숍이 열리고, DIY로 만든 티셔츠나 뱃지, 자가출판물인 진(zine), 비건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됨. 아시아에서는 인포숍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2019년 기준 일본(3개소), 필리핀(2개소), 홍콩(1개소) 등으로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 등은 별로 고려되지 않음.
- 이러한 독특한 맥락 안에서 인포숍카페별꼴은 자연스럽게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이벤트, 전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열어왔음. 특히 한국에서 유일한 진 라이브러리(zine library)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에이아카이브(a-archive)라는 이름의 진 만들기 워크숍과 전시가 진행됨. 2016년에는 노들장애인야학의 발달장애인 대상 낮수업에서 진 만들기 수업을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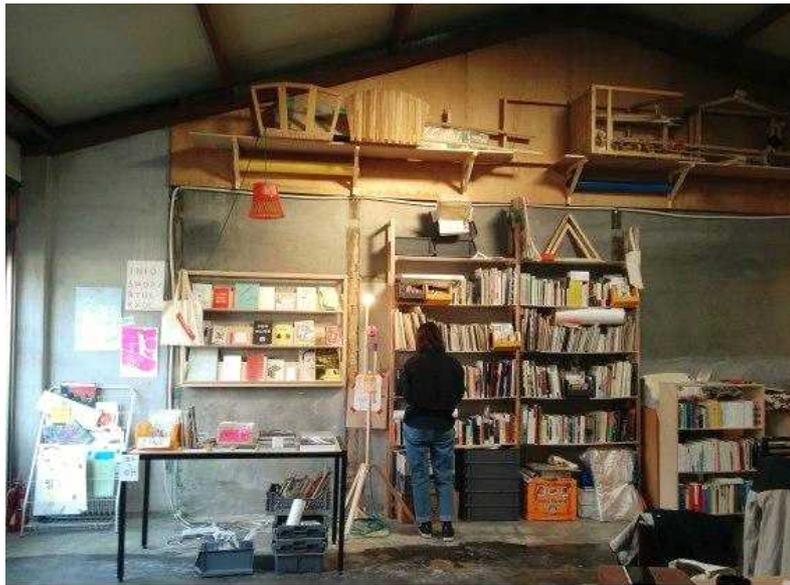
<그림5-1> DIY 종이만들기 워크숍

<종이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젖는다 (Papermakers Always Get Wet)>



*인포숍카페별꼴 제공

<그림5-2> 진라이브러리



*인포숍카페별꼴 제공

<그림5-3> 미디어아티스트 듀오 ‘다이애나밴드’와 함께 한 사운드진 워크숍



*인포숍카페별꼴 제공

나. 활동

- 인포숍카페별꼴은 기본적으로 시설 접근성을 위한 물리적 조성이 되어있음.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공간과 화장실을 갖춘.
- 카페로 영업을 하며 공간을 열어두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지역 주민들이 카페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에 접근할 수 있음. 일상 생활의 범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 퇴근길에 카페에 들르는 것이 유일한 평일의 여가 시간인 비장애인 직장인, 근처 동덕여대에 다니는 학생,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일부러 먼 길을 와서 커피를 마셔보는 중증장애인, LGBTAIQ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에서 쉬이는 공간임.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공간에서 열리는 활동에 신청을 하기도 함.
- 인포숍카페별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기획할 때는 항상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쉬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듦. 정보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워크숍이 열리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참여자들에게는 근처에 있는 장애인 관련 공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야학)에 직접 가서 권하는 방식으로 홍보함.
- 다양한 참여자 각각의 특성에 100% 맞는 워크숍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항상 워크숍을 기획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함. 예를 들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워크숍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온다면,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온다면, 연필을 손으

로 쥐기가 힘든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를 상상해보고 워크숍을 기획합니다.”
(인포숍카페별꼴 매니저 지로 인터뷰 2019)

- 창작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고, 잘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낮은 매체인 진(zine)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만들기 좋은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됨.
- 중증장애인 참여자가 있을 경우, 워크숍 내용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공간까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진행함. 장애인콜택시 등의 이동수단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들을 미리 배치하기도 함.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가장 이동이 힘든 참여자의 집에서 워크숍을 여는 것까지 고려함.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 AAC⁴⁾ 등의 다른 소통방식을 준비하기도 함.
- 인포숍카페별꼴의 기획자들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으로 워크숍을 설계하면, 다른 다양한 참여자들 모두에게 참여하기 좋은 워크숍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고 함.

2) 차별없는가게

가. 활동의 맥락

- 차별없는가게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하는 콜렉티브 다이애나랩과 인포숍카페별꼴이 2019년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미디어 아트, 사진, 영상, 회화 등 본인의 예술 활동을 하는 전업 작가인 동시에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오래 해왔음.
-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섬세하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기획한 프로젝트임.
- 차별없는가게는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하나의 개인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음. 다이애나랩의 멤버가 중증발달장애인과 함께 ‘휠체어를 환영하는 가게’로 소문난 식당에 갔다가 쫓겨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휠체어가

4) AAC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도구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 뿐만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중요했다고 함.

-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경계성 장애인, 혹은 LGBTAIQ와 같이 사회에서 쉽게 차별을 받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쫓겨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할 것인가가 쟁점이 있음.
- 배리어프리 공간 조성을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법이나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그간 장애인 인권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함. 그러나 법과 제도의 변화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장애인 접근권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전무한 상태.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의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강제하지 않고 인식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자 시도였다고 평가됨.

<그림5-4> 차별없는가게 약속문과 접근성 아이콘

약속문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항상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이, 성별, 성향채성, 성적지향, 장애와 혼인 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직력, 가족 관계,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지식, 경험, 가치관, 취향을 존중하며, 누구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애만 동점이 아닌 나의 동등한 존재로 서로를 대합니다.

모르는 것,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며 대처합니다.

접근성 아이콘

<차별없는가게> 웹사이트에 있는 참가자가 상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접근성의 정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할당실
휠체어를 할당할 수 있는 할당실이 있음



성숙한 할당실
남성(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생활 수 있는 할당실이 있음



휠체어 성숙한 할당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성숙한 할당실이 있음



참지않는바
참지않는바 아이콘 있음



음성안내
안내나 음성인식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도움 및 불만을 지원함



문자안내
안내나 문자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주문할 수 있는 안내문자판을 지원함



턱 없는 입구
입구에 턱이 없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고형식 경사로
경사가 있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
계단이 있거나 이동식 경사가 있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유아차 동반가능
가게 내부에 유아차의 행거를 둘 수 있음



배달주문 동반가능
가게 내부에 배달주문과 행거 둘 수 있음



모든 연령 환영
LGBTAIQ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 것을 약속함



AAC 메뉴판
방문당어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주문할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메뉴판이 있음



채식 메뉴
채식, 고기, 무채식, 알레르기 등 다양한 식이요구와 알레르기(vegan) 메뉴가 있음



휠체어 리프트
계단이 있거나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주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LGBTAIQ 환영
음반, 영, 문화의 영역 지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 약속함



발달장애인 환영
발달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이 있음 것을 약속함



수화 가능
가게에 수화문 손동자 가능한 서비스가 있음

***다이애나랩 제공**

<그림5-5> 차별없는가게 AAC카페메뉴판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소통> 제작



*다이나랩 제공

<그림5-6> 이동식경사로를 설치한 차별없는가게



*다이나랩 제공

<그림5-7> 차별없는가게 점자메뉴판과 모뉴먼트



*다이에나랩 제공

나. 활동

- 차별없는가게의 조성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됨. 첫 번째는 공간의 물리적인 조성을 갖추는 것. 두 번째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약속에 관련한 부분.
- 차별없는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리적인 ‘턱’ 이 없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했으므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 이상의 가게는 섭외에서 제외함. 1층에 위치한 가게이지만 1-2개의 턱이 있을 경우 고정식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카업 등을 설치해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조성비는 서울시 청년청 세대균형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을 표기하고, 가게 내부에 휠체어 화장실이 없을 경우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안내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이 있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혹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드물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턱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함.
- 시각장애인의 가게 접근을 위해서는 점자메뉴판을 가게마다 만들어 비치하고,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게 주인이 ‘음성으로 안내할 것’ 을 약속받음.

-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수화가 가능할 경우 수화가 가능한 스텝이 있음을 가게 안내에 표기. 수화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방문했을 경우, 혹은 수화 가능한 스텝이 부재할 경우 필담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메모지와 펜 등을 비치해 언제든지 필담을 나눌 준비를 할 것을 가게마다 약속 받음.
- 발달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 AAC 메뉴판이나 카드를 비치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메뉴가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개별적인 AAC 메뉴판을 만들기에 디자인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었으므로, AAC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AAC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사진이 있는 메뉴판을 준비하도록 안내함.
- 차별없는가게 프로젝트에서 물리적인 조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했던 것은 내적인 조성이었음. 실제로 지자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놓기,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가게 지도 만들기 사업을 꽤 진행한 바 있지만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가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 장애인이 불쌍하기 때문에 동정을 해서 가게에 경사로를 놓아준 경우도 많았음.
- 동정도 차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차별없는가게에서는 나아장애인권교육센터와 협력해 사업장마다 찾아가 장애인권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함.
- LGBTAIQ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가게마다 받음.
- 이러한 물리적인 조건, 내적 조건을 갖춘 가게 30곳의 지도를 만들고 웹사이트 www.wewelcomeall.net 을 통해 공개함.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고려해 만들었지만, 국내에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웹 지도 서비스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도 부분에 접근성을 구현하기는 불가능했음. 최대한 많은 텍스트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만듦.
- 차별없는가게 중 전시가 가능한 6곳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작품을 전시함. 작가의 대부분은 거주시설에 살고 있으나 향후 자립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필요한 상태였음. 또한 전시를 통해 중증장애인과 공간과의 접점을 만들어 가게에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음. 손님과 주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예술 작가로 만나는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했음.

2. 해외사례 : 일본

1) 와라코 미술관

가. 활동의 맥락

- 와라코 미술관은 일본 고치시에 위치한 아르브뤼(Art brut) 미술관으로 비영리법인 워크미라이고치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고치시는 시코쿠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33만의 도시로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임을 감안할 때 중소도시라 볼 수 있음. (고치현 인구는 2012년 통계 기준 75만)
- 아르브뤼는 프랑스의 화가 장 뒤뷔페가 1945년 만든 개념으로,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뜻함. 브뤼(Brut)는 프랑스어로 ‘원시적인’ ‘가공하지 않음’ ‘날 것’ 이라는 의미이며, 영어로는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 Art)로 번역됨.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정신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 아웃사이드 아트의 범주로 흔히 분류됨. 그렇지만 아르브뤼가 꼭 장애인 예술을 뜻하는 것은 아님.
- 와라코 미술관은 고치 시내의 오래된 벚집 보관 창고를 재생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와라코는 일본어로 벚집 창고라는 뜻. 와라코 미술관 외에 다른 벚집 보관 창고는 공연장, 아틀리에 등으로 활용됨. 모두 배리어프리 공간이기는 하지만, 운영 주체는 비장애인 예술인이나 단체임. 그 중 장애 관련 공간은 와라코 미술관이 유일함.
- 법인 워크미라이고치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비영리단체로, 고치 시내에 레스토랑, 바, 고치 특산물 녹차 전문 찻집 등 6군데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장애인이 일하는 곳’ 임을 홍보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평범한 카페나 식당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맛있는 차, 재미있는 전시, 분위기가 좋은 술집에 갔더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라코 미술관 큐레이터 마츠모토 시호코)
- 2010년 프랑스에서 일본의 아르브뤼를 소개하는 전시 <아르브뤼 자포네(Art Brut Japonais)>에 200만명의 관람객이 문전성시를 이뤘던 일이 있었음. 이후, 전시의 인기에 비해 일본 내부의 장애인 예술 관련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반성이 있었음. 때문에 전국 곳곳에 아르브뤼 미술관을 만들어 작가 발굴과 작품 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시 일본 최초의 아르브뤼 미술관인 노마와 일본재단이 함

께 제기하여, 일본 지방 도시에서 아르브뤼 미술관을 만들고 싶은 단체에 일본재단에서 시설비로 300만엔을 지원하기로 함. 이때 만들어진 4군데의 미술관 중 하나가 고치 와라코 미술관. 나머지 3군데의 미술관은 모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만든 것이고, 와라코 미술관을 운영하는 워크미라이고치가 유일하게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임.

- 와라코 미술관이 장애인이나 아르브뤼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은, 운영법인인 워크미라이고치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온 단체이기 때문임.
- 때문에 와라코 미술관은 고치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 관련 활동의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비장애인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함. 계속해서 양쪽 네트워크에 동시에 얼굴을 비추면서 활동을 하고 두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해오고 있음.
- 와라코 미술관은 장애가 있는 작가들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미술관이기는 하지만, 이벤트나 워크숍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이게 기획함.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르브뤼 미술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설접근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는 함.

<그림5-8> 고치의 자연재료로 쉽게 소리나는 악기를 만들어 연주해보는 워크숍



*출처: 와라코미술관 웹사이트

그림<5-9> <플립애니메이션x댄스x음악워크숍> 워크숍에서 만든
플립애니메이션을 상영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 형식의 발표



*출처: 와라코미술관 웹사이트

나. 활동

- 와라코 미술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비장애인 예술인을 강사로 섭외할 경우, 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섭외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임. 단, 강사 섭외는 신뢰 관계가 있는 지역의 비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네트워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함. 전혀 모르는 사이이지만 유명하거나 멋진 작품을 만든다는 이유로 예술인 강사를 섭외하는 일은 지양함.
- 장애인 예술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참여대상을 모집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러운 비율로 섞일 수 있게, 장애인 관련 단체와 비장애인 관련 단체에 동시에 홍보함. 예를 들어 초등 중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기획하는 경우, 비장애인 학교와 특수학교에 동시에 포스터와 팜플렛을 비치함. 그렇게 하면 장애인 참여자와 비장애인 참여자가 비슷한 비율로 모임.
- 장애인 참여자의 장애 유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따라 수화통역을 준비하거나 미술관에 비치된 AAC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참여자의 대부분은 경증 장애인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공작 숙제 만들기, 천연 염색, 사진으로 플립 애니메이션 만들기, 쿠지비키 드로잉(제비 뽑기를 해서 종이에 쓰여진 단어로 드로잉), 골판지 하우스 캠핑, 몸 움직이기 등 교육 강사에 따라 달라짐.
- 와라코 미술관 옆에 있는 벗짚 창고가 공연장으로 꾸며져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극이나 공연에 대한 관심으로 연극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음. 한 번도 연극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연극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참여자로 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연극을 보러 가보는 프로그램, 연극이 뭔지 다같이 이야기해보는 프로그램 등을 시작함. 몇 년 후에는 다른 도시의 장애인 극단을 초청해 장애인이 등장하는 연극 작품을 관람해봄. 그 후 연극에 좀 더 관심이 생긴 참여자들과 함께 연극을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는 중.
- 와라코 미술관의 사례는 시설 접근성을 갖춘 공간에서, 장애인 참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비장애인과 통합 예술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또한 생활문화의 차원에서, 예술 자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애인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창작을 하게 되기까지가 어떤 프로세스로 가능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사례임.

2) 코코룸

가. 활동의 맥락

- 코코룸은 오사카 가마가사키에 위치한 공간으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포숍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NPO법인 코에토코토바토코코로노헤야(목소리와 말과 마음의 방, 약칭 코코룸)가 운영.
- 가마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큰 슬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의 인력시장이 있고 홈리스가 밀집한 지역.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을 했던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 모여들며 조성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역사가 있는 지역. 지금은 인력시장의 규모가 줄고 노동자들의 연령이 높아져, 빈곤한 노숙인, 노인,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실업, 노숙, 고령화로 인한 생활보호수급자의 급증,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며, 도심

관광지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재개발과 강제 철거 이야기가 선거철마다 이슈가 되곤 함.

- 코코룸은 시인인 우에다 가나요가 주축이 되어 2003년 4월 만든 공간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3번 공간을 바꾸어 운영해 옴. 첫 번째 공간은 오락시설인 페스티벌 게이트 빌딩의 한 층에 무대와 객석, 카페가 있는 100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었음. 오사카시가 도심 빌딩 내부의 빈 점포를 활용해 현대예술의 거점을 만들려는 시도로 추진한 <신세계 아츠파크 사업>에서 공간과 공과금을 지원받는 형태였음. 홈리스 밀집지역과 낙후지역에 예술가를 투입해 10년 간 지역재생을 한다는 목적의 사업이었지만, 5년 만에 끝나게 됨. <신세계 아트파크 사업>은 예술가를 지역에 파견해 해당 지역에 공간을 제공하고 작품을 만들게 하는 일방향적인 기획이었지만, 우에다 가나요 개인의 의지로 지역 주민과 밀착해 함께 작품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간으로 발전.
- 이후 가마가사키 아케이드 상점가의 작은 카페 겸 사무실로 공간을 옮겨 운영. 당시 가마가사키에는 활동가 단체가 많았지만,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공간은 코코룸이 유일했음. 이 시기에 코코룸은 <커먼!미디어센터>라는 이름의 작은 미디어센터 및 교류공간을 운영하며 외부와 가마가사키를 잇는 활동을 함.
- 세 번째 이사한 공간은 같은 아케이드 내에 있는 마당이 딸린 독립건물로, 침대 36개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예술가, 홈리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백수, 중년과 고령자, 자원봉사자, 아직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젊은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며, 항상 카페로 열려있다는 것이 특징. “예술이라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힘든 활동을 NPO법인으로서 해나갈 때 우리는 ‘열림’이라는 선택을 했다.”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이라고 여김⁵⁾(재단법인 탄포포노이에, 2007).

5) 2007년에 재단법인 탄포포노이에(민들레의집)가 발간한 『Access Arts 2007 장애가 있는 이의 예술 문화 가이드』에 소개된 코코룸 운영자 우에다 가나요의 글 중 발췌. 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부록에 별첨함.

<그림5-10>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신년휘호 쓰기 강좌



*출처: 코코롬 페이스북

<그림5-11>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합창 수업은
매년 8월 열리는 가마가사키 지역 여름 축제에서 공연을 한다.



*출처: 코코롬 페이스북

나. 활동

- 코코룸의 가장 유명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으로, 2012년 코코룸이 운영하던 출장 표현 워크숍(코코룸이 아닌 외부에서 운영하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통칭)이 발전하여 만들어짐. 2014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이 참여하며 이름이 날려짐. 대만에서 두 번의 전시회에 초대되고,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시애틀에서 활동보고회를 해 많은 관심을 받음.
-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이나 각자 원한다면 후원금을 낼 수 있음.
- 기획자 우에다 가나요에 따르면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을 강좌 개설에는 3가지 기준이 있음. 참가자가 스스로 개설을 원하는 강좌이거나, 참가자가 어떤 외부 강사를 불러와달라고 요청했거나, 이런 강좌가 있으면 참가자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은 강좌일 것. 여기에서 참가자는 가마가사키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홈리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로 고려한 개념인 ‘아저씨’로 통칭함(최선영, 2018).
-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의 참여자는 주로 이 ‘아저씨’ 들인데, 참여를 하는 동시에 강좌의 강사가 되는 경우도 혼함. 특히 맥주캔이나 철사를 구부려 지역의 상징물을 만드는 강좌의 경우 가마가사키에 거주하는 아저씨 중 한분이 오랫동안 강사를 맡아왔고, 관련 전시를 열어 TV에 소개되기도 했음.
- 2018년부터는 오사카대학CO디자인센터와 연계해 협력 강좌 ‘KamaHan’을 열고 있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강좌와 동일하지만, 오사카대학의 학생들이 수강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열린다는 것이 특징. 학생들이 슬럼인 가마가사키 거리를 걷고, 가마가사키의 예술을 체험하고, 수업에서 ‘아저씨’ 들을 직접 만나면서 사회와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수업.
- 2020년 1월에 열리는 ‘KamaHan’ 강좌는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사진작가 사이토 하루미치를 강사로 초빙해, 수강생들이 가마가사키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이후 결과물을 전시 하는 기획임. 사이토 하루미치는 캐논이 주최하는 <신세기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젊은 사진가로, 주로 사회적 소수자 및 장애인, LGBTAIQ를 주제로 작업을 해왔음.
-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에는 보통 한 강좌가 5-50명 정도가 참여하며, 큰 행사의 경우 300명 정도가 모이기도 함. 2019년 12월에서 2월까지 진행되는 강좌는 다음과 같음. “신년 휘호 쓰기, 코러스 클럽(합창), 시짓기, 카드 게임 콘테스트, 주먹밥을 만들어서 노숙인과 함께 나누기, 사진작가와 함께 가마가사키 사진 찍기, 소리내어

책읽기, 댄스, 교육학자와 함께 일상에 대해 연구하기.”

- 그간 진행된 <가마가사키 예술대학> 강좌에는 “미학, 가마가사키 거리 걷기, 맥주 캔으로 탑 모형 만들기, 타코야키 만들기, 사운드 스케이프, 천문학, 과학소설, 가마가사키 오페라, 참가자들이 10년 후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에 대한 의견 말하기, 음악 수업” 등이 있음.
- 무대공연을 함께 만드는 워크숍의 경우, 평소 코코롬 카페에 드나드는 지체장애인이거나 홈리스 노인들이 참여.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쉬운 악기를 만들고, 시를 짓고, 낭독을 하고, 이후 공연으로 발전시키는 형태였음. 다른 도시로 공연을 하러 다니기도 함.

3. 해외사례 : 영국

1) 웨이프아츠(Shape Arts)

가. 개요

- 웨이프아츠(Shape Arts)는 장애에 중점을 둔 예술단체로 장애인 예술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기관이 더 장애인에게 열린 기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웨이프아츠의 사업은 ‘장애인 예술가’ 대상의 사업과 ‘문화예술 기관’ 대상의 사업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비중으로 보면 ‘장애인 예술가’ 대상의 사업이 더 많음.
-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모든 웨이프아츠의 프로그램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애를 의학적 의미의 불구, 건강 상태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 내의 신체, 태도의 측면에서의 장애물을 가리킴. 부연하면 선입견, 접근성 부족, 체계적인 배제(prejudice, lack of access adjustments and systemic exclusion) 등이 진정 사람을 장애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함.

나. 장애인 예술가 대상 프로그램

<표5-1> 장애인 예술가 대상 프로그램

Shape Open	<p>매년 개최되는 정기 전시회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출품한 장애 관련 주제의 작품으로 구성됨. Bow Arts’ Nunnery Gallery, Portobello Gallery, Yinka Shonibare CBE’ s Guest Projects 등의 예술가가 운영하는 유명한 공간들에서 개최되며, 이 전시회를 통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들이 특정 이슈와 주제에 대해 생각을 주고받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함.</p> <p>※ Shape Open 2019는 2019년 9월 6-19일에 개최되었으며, “In Circles” 라는 주제를 통해 비장애 예술가들의 작업은 진보(progress)하고 있는지, 일반적, 제도적 의미의 진보, 진전을 비장애 예술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p>
------------	--

	논의함
Adam Reynolds Memorial Bursary	셰이프아츠의 대표적인 상(award)으로, 조각가 Adam Reynolds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리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음. 이 상은 중견 장애 예술가/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과 함께 3개월간 최고의 레지던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이력을 쌓고 실질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Shape Collection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컬렉션하는 작업으로 현재까지 Adam Reynolds, Tom Shakespeare, Jason Wilsher-Mills 등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장함.
NDACA (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and Archive)	1968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주요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디지털화한 플랫폼으로 3,500장의 이미지, 필름 인터뷰, 교육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음. 일반 대중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www.the-ndaca.org를 통해 접속 가능함.
Unlimited co-delivered with Artsadmin	장애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문화예술 기관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과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장애 평등 교육’ 수행
-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감사(audit) 진행
- 셰이프아츠는 추가적으로 장애인과 함께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5-2> 문화예술 기관 대상 프로그램

제목	내용
접근 가능한 예술 마케팅 가이드 (An Accessible Arts Marketing Guide)	마케팅의 모든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접근성 있는 전시회 만들기 (How to Put on an accessible	큐레이터, 프로그래머, 전시기획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확보

exhibition)	된 전시를 만드는 방법 소개
예술을 보는 다양한 방법 책자 (Ways of Seeing Art Bookl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를 만드는 방법
접근 가능한 행사 만들기 (Making Events Accessible)	접근성 높은 행사를 만들기 위한 방 법 소개
청각장애인을 포용하는 행사 (Inclusive Events for Deaf People)	청각장애인을 배제시키지 않는 행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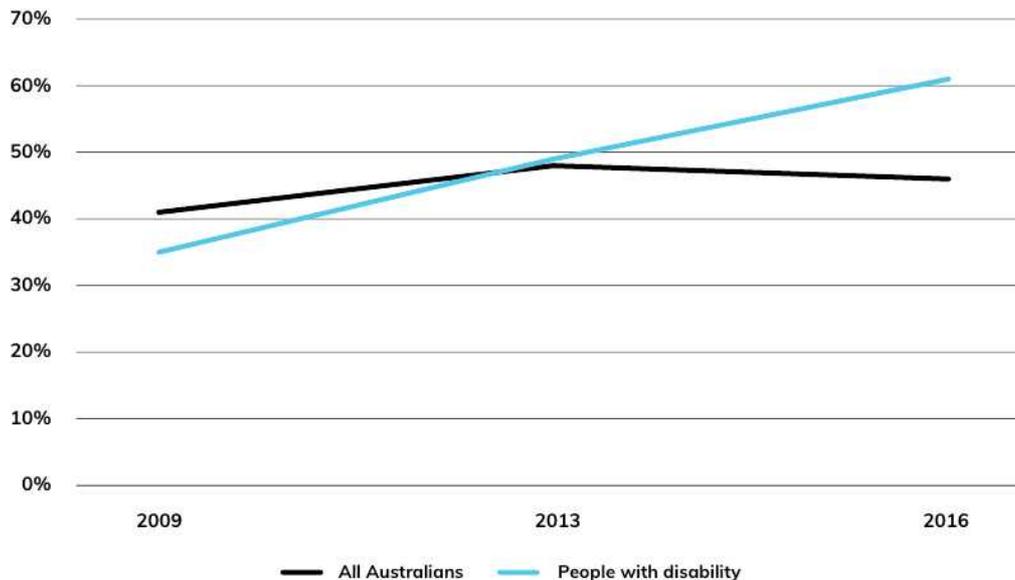
4. 해외사례: 호주

* <Arts and Disability(ACA, 2018)> 문서를 요약정리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적 활동 증가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에서 진행한 ‘전국 예술 참여 조사(National Arts Participation Survey)’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장애인의 61%가 문화예술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 44%보다 더 높은 참여 수준을 보임.
- 전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비장애인보다 높았는데, 특히 시각예술, 공예, 창조적 글쓰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였음.

<그림5-12> 호주 장애인/비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 출처: 호주예술위원회 전국 예술 참여 조사 2009, 2013, 2016 자료

All Australians: 비장애인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인

○ Tutti Kids and Youth

- 1997년에 설립된 단체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과 청소년에게 시각예술, 노래, 작곡, 음악, 춤, 연극 등의 분야에서 방과 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예술을 생산하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형태’, ‘대조’, ‘경계’, ‘공간적 관계’, ‘크기’ 등의 다양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음악의 박자, 리듬, 템포를 익히는 활동을 통해 음향적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반복적으로 음악을 듣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더 쉽고 재밌는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그림5-13> The Tutti Kids and Youth 2017 Showcase



*출처: Arts and Disability(ACA, 2018)

○ Dance Unlimited

- 2017년 발족한 프로그램으로 퀸즈랜드의 타운빌(Townsville)에 거주하는 어린 장애인들을 위한 무용 수업임. 무용 작업을 통해 몸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고 자아확신(self-assurance)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 10주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13명이 참여하여 균형 감각, 몸의 미세한 조정, 단체 활동, 사회적 기술 등을 다양한 형태로 학습함. 10주의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 모두 초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5-14> Rebus Theatre 프로그램 장면



*출처: Arts and Disability(ACA, 2018)

○ Rebus Theatre - Open Doors Open Minds

- Rebus는 장애/비장애 통합(mixed ability) 극단으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작업을 주로 수행함. 처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배우가 실제 경험한 차별과 스티그마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시작함.
- Rebus는 포럼 씨어터(form theatre)라는 형식을 사용하는데,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상호 소통하여 위협적이지 않고 재미있는 상황에서 실제 삶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함.
- 여기서 진행한 <Open Doors Open Minds>라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단체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운영한 무료 워크숍임. 지역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워크숍에는 전부 장애인이 출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단체가 좀 더 장애인들에게 열려있고 포용적인 곳이 되기를 추구함. 주로 북클럽, 스포츠클럽, 문화예술 단체, 종교단체, 모금단체 등이 참여함.
- 워크숍의 내용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 접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다루고, 워크숍을 보는 관객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5. 해외사례: 미국

* <Arts Participation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NEA, 2012)> 문서를 요약정리

-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2012년에 진행한 “대중의 예술 참여 조사(SPPA,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는 응답자의 장애 여부를 조사하여 처음으로 장애인의 예술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됨.
- 2012년 기준 응답자의 약 12%인 28만 명이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정도에 대한 비장애인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함.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공연, 음악회, 박물관, 갤러리 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그러나 관람의 장소가 종교시설인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람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음.
- 문화예술 참여적 활동, 예를 들어 그림, 도예, 공예, 창의적 글쓰기 등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섬유아트(fiber arts)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참여가 비장애인보다 높았음.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문화예술 관람·향유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모바일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장애인의 모바일기기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제6장.

장애인 생활예술 관련 FA 역량 개발방안

제6장. 장애인 생활예술 관련 FA 역량 개발방안

1. 방향성

1) 피실리테이팅 방식의 논의 기회 마련

- 대화와 협의, 피실리테이팅을 중심 역할로 하는 FA가 생활예술에 대한 정리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FA가 스스로 생활예술에 대한 다양한 현장을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참조들을 구체적인 워크숍 및 토론 방법을 통해 소개
- 생활예술과 장애인의 삶 관련 연결 가능한 개념, 의미, 가치, 사례에 대한 다양한 논의 확장의 자리 마련

2) 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의 사업 참여 가능성 모색

- 생활예술 사업 관련 현장에 FA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생활예술지원센터 등 생활예술 사업 관련 문화공간 탐방 및 조사를 통해 FA가 스스로 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형 방법론 설계

3) 접근성 중심의 사고 전환

- 기존의 생활예술 사업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 이러한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 설계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크게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현황과 개선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4) 장애를 포괄한 문화다양성 및 인권 중심적 접근

- 장애 자체에만 집중함으로써 장애인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예술의 주체로 전제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확대
- 생활예술에 대한 문헌자료의 학습을 넘어 삶에 대한 다양한 성찰의 기회를 문화다

양성, 인권, 인문학 등과 관련하여 모색

- 인간적 삶에 대한 FA의 다양한 관점이 발생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 측면에서 역량 개발 모델을 제시함.

<표6-1>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관련 요소	리서치형	강의형	워크숍형	학습모임형
정보 접근성	○	○		○
시설 접근성	○	○		○
경험 접근성		○	○	○

1) 리서치형⁶⁾

- 운영 목적 : FA가 현장 중심의 리서치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과 생활예술 개념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모색

- 운영 방식 및 내용

-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조사를 FA가 직접 진행
-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전철역과의 거리, 휠체어 입장 가능 여부, 장애인 화장실 유무, 점자안내판 설치 유무 등을 체크 리스트를 기반으로 조사
- FA에게 조사 방법 및 체크 리스트 작성방법 안내
- 일정 기간동안 FA 1명이 3곳 이상의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사하여 센터별 비교가 가능한 경험 기회 마련

6) ‘0set 프로젝트’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조사 및 창작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서술함. ‘0set 프로젝트’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를 저울 위에 놓고 0set 버튼을 눌러 공연의 재료로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소개 출처 : <https://www.facebook.com/0setproject>)

- FA가 체크 리스트 작성 외에도 조사 참여 소감을 작성
- 조사 후 토론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관련 생활문화 참여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조사과정 공유
- 장애인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입장 및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토론 방식을 통해 공유
- 조사 결과는 추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특징

- 장애인이 생활권 안에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생활예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접근성 조사를 하지만 센터에 대한 현황 파악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활용

* ‘리서치형’ 은 본 연구보고서의 4장에 있는 서울문화재단 선정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시설 접근성 조사 방식과 동일함.

2) 시뮬레이션 기반 강의형

- 운영 목적 : FA가 생활예술 사업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및 방법론을 현장 중심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전달

- 운영 방식 및 내용

-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 장치 및 활용 가능한 정보, 인력에 대한 안내
- 전문가가 2시간 이내의 강의형태로 진행 및 안내자료를 통해 내용 전달
- 어떤 장애유형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생활예술 사업에 문의를 하거나 참여의지를 표현했을 경우 등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상황별 지원 방안 안내
- FA가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문인력에 대한 안내 진행
- 그러나 장애인을 생활예술 사업의 수동적인 참여자로 전제하고 지원만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의 운

영 구조 마련을 모색

- 특징

- FA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예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FA가 장애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장애인이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 따라 FA가 협력하거나 지원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생활예술 사업의 경험 접근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워크숍형⁷⁾

- 운영 목적 : FA가 문화다양성의 맥락에서 장애, 장애인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마련하고 사회적 상황과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운영 방식 및 내용

-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미를 생활예술 개념과 연결하여 재발견하는 놀이 워크숍 진행
- 퍼실리테이터가 2시간 이내의 스토리텔링 워크숍 진행
- 확정된 생활예술의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FA별로 생활예술의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다양한 삶의 관점을 발견하는 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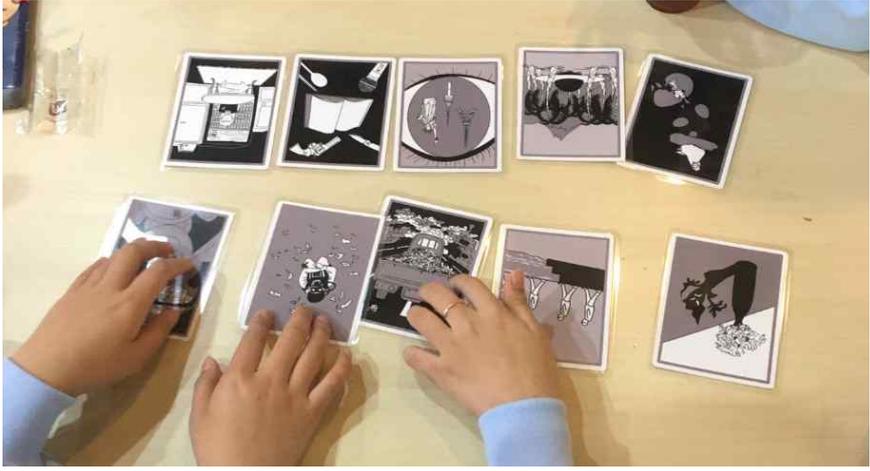
- 특징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차이를 개인적, 사회적 관점과 연결해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경험 접근성에 대한 확장된 시선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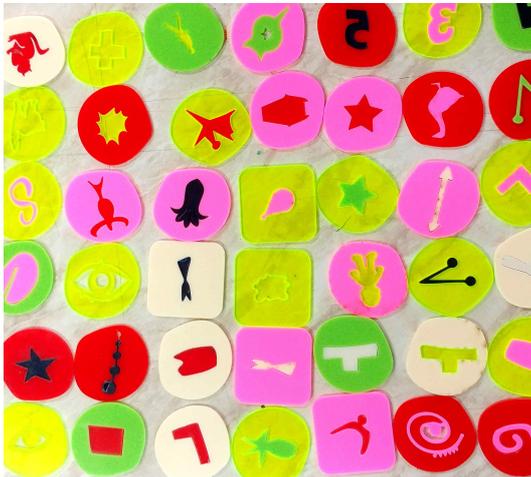
7) ‘창작그룹 비기자’의 다름의 가치를 발견하는 워크숍 사례를 참고하여 서술함. ‘창작그룹 비기자’는 무한경쟁시대에 각기 다른 생각들이 꾸준히 비길 수 있는 현장을 인문학적 문화예술 활동으로 만드는 창작그룹.

(소개 출처 : <https://bigija.tistory.com>)

〈표6-2〉 ‘다름의 모양’ 워크숍 세부안

구성	세부내용
그림카드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름, 예술, 문화, 삶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나 의견을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이야기 나눔 - 일상 속 문화다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의 진행 - 퍼실리테이터가 질문을 하고, FA가 그에 대한 답변을 그림카드를 고른 후 선택한 이유와 함께 이야기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전반과 관련한 질문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에서 발견한 가장 낮은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 중 사회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생활예술 사업과 관련한 질문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예술 사업을 통해 당신이 만나고 싶은 현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FA가 가장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생활예술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 FA별로 선택하는 카드의 종류가 다를 경우, 카드를 고른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퍼실리테이터가 FA의 답변을 토대로 공통되거나 다른 관점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이 갖는 다양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내용에 따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생활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나 관점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카드 놀이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 도출 - 키워드를 바탕으로 서로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놀이 진행 - 키워드 카드 4-5장을 이용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순서대로 카드를 배치하고 이야기를 나눔 <div data-bbox="406 705 1332 996"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①버티기, ②거절하기, ③증명하기, ④시도하기 라는 키워드가 제시될 경우 퍼실리테이터가 제안할 수 있는 대화의 예시 : <p>“당신이 FA의 역할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태도의 순서대로 놓아보세요”</p> <p>“당신이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의 순서대로 놓아보세요.”</p> - FA별로 각자 다른 순서로 카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카드를 배치한 이유와 맥락에 대해 서로 묻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퍼실리테이터가 FA의 답변을 토대로 공통되거나 다른 관점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이 갖는 다양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대화 내용에 따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생활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나 관점을 공유
<p>그림 받아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가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한 장의 그림을 준비 - 한 장의 그림에 대해 한 사람(술래)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진행 - FA가 술래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번갈아 참여 - 처음에 술래만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그 사람의

	<p>관점과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래가 5가지의 문장으로 그림에 대해 설명 - 이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술래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음 - 질문의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속 날씨는 어떤가요?” “아까 그림 속에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모양의 나무인가요?” “그림 속 장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가요?” - 한 장의 그림에 대해 20-30분 가량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그림을 그린 후 술래가 보고 이야기했던 그림을 함께 봄 - 사람들이 원래 그림과 얼마나 비슷하게 그렸는지를 평가하기보다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하여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눔 - 각자의 다른 생각, 해석, 표현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의견을 나눔으로써 FA간의 다양한 시선과 표현 방식의 의미를 발견 - 동일한 방식으로 1-2장의 그림을 활용한 놀이를 추가로 진행
<p>이야기 모양자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가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이야기모양자 세트를 준비 - 그동안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심화된 질문을 제시하고 그 답변을 이야기모양자로 테이블 위에 표현 - 사용 가능한 이야기모양자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질문 예시 :</p> <p>“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p> <p>“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에서는 어떤 장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p> <p>“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생활예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p> <p>“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p> <p>- 이야기모양자로 표현한 조형작업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눔</p>
--

*** 본 연구의 워크숍 연계 FGI를 통해 FA 3명과 실제 워크숍 진행 후 피드백 공유**

“생활문화나 생활예술에 대해서 FA들의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나누는 방향성이 의미 있었다.”

“사업에 대한 내용 학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FA들이 이 사업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학습모임형

- 운영 목적 : FA가 생활예술 사업 및 시민들의 활동을 다각도로 재발견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 기회 마련

- 운영 방식 및 내용

- 장애인의 삶 속에서의 생활예술 접근 가능성,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본 생활예술 및 생활문화, 생활예술 사업 내에서의 다양한 논의점 등을 FA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임 지원
- FA 활동 기간 중 3-5명 소규모 학습모임에 대한 활동 지원
- 학습모임 활동을 FA의 공식적인 활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 필요
- 서울문화재단이 학습 주제별 관련 자료를 상시로 제공하고 FA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와의 만남 기회 마련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습모임의 경우 장애운동 활동가, 장애학 연구자 등과의 연계 기회 마련
- FA가 생활예술 사업 실행을 위한 기능인으로만 위치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최종적으로는 학습모임 과정을 기록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모임별 자체적으로 설정한 결과물을 공유
- 서울문화재단은 현장 중심의 학습 주제 및 내용을 토대로 추후 사업 개선 방안 마련 가능

- 특징

- FA 스스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제7장. 정책적 제언

제7장. 정책적 제언

1. 생활문화 개념으로의 접근

-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의 시민을 예술 활동 관심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활예술참여자, 생활예술활동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생활예술가로 성장하는 지원전략을 수립함.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추진 전략은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순환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은 일반적인 문화활동, 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기 어려워 예술활동 관심자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적 행위를 하는 것 이전에 각자의 문화를 가진 존재로서의 장애인이 사회적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함.
- 또한 장르적 예술활동의 일상화를 넘어, 삶 자체로서의 문화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생활문화 개념을 통해 재인식해야 시민의 일상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음.
-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생활문화 개념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현실적 상황을 포괄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반영했을 때 생활예술보다 생활문화 개념을 채택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2.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전제한 생활문화의 개념 확장

- 생활문화 개념에서 강조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비 장애인 중심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대상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며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문화가 전제하고 있는 시민, 주체성, 권리, 일상성, 지역문화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과 연관된 개념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음.
- 장애인이 자유롭게 공간을 오가고 정보를 접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전제로 생활문화 관련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생활문화 개념이 전제하는 요소가 장애인의 삶 속에서는 다르게 인식

되거나 의미화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함.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경험 기회의 부족 등 일상 속 어려움이 다른 해석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음.

- 특히 생활문화 개념에서의 주체성은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확장된 관점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소한의 생존 이외의 니즈need나 욕망까지도 포함해야 함.

3. 생활문화 사업 내 단계적 사업 개선

-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생활 속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스스로 문화를 경험 및 형성해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해 나가야 함.
- 장애인을 위한 강력하고 획일화된 생활예술 지원 모델의 개발보다는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복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관점에서 다양한 모델 논의도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나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생활문화 사업 관련 당장의 전반적인 사업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실행 가능한 범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7-1> 단계별 사업 개선안

1단계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참여 지원을 위한 자문인력 확보 - 지역 내 시설 접근이 가능한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장애인 참여 가능한 생활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 - 장애인 참여 동아리를 포함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들의 기초 수요 조사 시행 	정보 접근성 확보 중심
2단계	- 장애인이 생활문화 사업 내 참여를 문의할 경	시설 접근성

<p>(2-3차년도)</p>	<p>우 안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및 자문인력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경험 및 특성에 맞춘(비장애인 중심의 일상성, 자발성, 주체성이 아닌) 생활예술 활동 사례 조사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에 관한 사례 및 기초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행사 설계 - 지역 내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생활예술 프로그램의 참여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 -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대상의 경험 접근성,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의무화 	<p>확보 중심</p>
<p>3단계 (4-5차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생활예술 사례 아카이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장 - 지속적인 정보 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재단, 자치구 담당자, FA, 자문단 간 안정적인 소통 및 논의 체계 구축 	<p>경험 접근성 확보 중심</p>

4. FA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체적 논의 과정 설계

- 생활문화 사업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FA의 역할을 명시, 교육하는 것을 넘어 FA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대화와 협의, 퍼실리테이팅을 중심 역할로 하는 FA가 생활예술에 대한 정리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FA가 스스로 생활예술에 대한 다양한 현장을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참조들을 구체적인 워크숍 및 토론 방법을 통해 소개.
- FA가 인식하고 재정의하는 생활문화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

로써 전문가의 논리에 의존했던 기존의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개편.

-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크게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현황과 개선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생활예술에 대한 문헌자료의 학습을 넘어 삶에 대한 다양한 성찰의 기회를 문화다양성, 인권, 인문학 등과 관련하여 모색.
- 인간적 삶에 대한 FA의 다양한 관점이 발생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리서치형, 워크숍형, 시뮬레이션 기반 강의형, 학습모임형 등 운영 가능.

5.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넘어 문화다양성 실현으로

- 생활예술과 생활문화를 비교하거나 선택하는 차원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문화를 어떻게 전제하고 의미화 할 것인지, 사업적 관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나 삶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
- 생활문화와 연결하여 문화다양성, 인간적 삶, 인권 등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 필요.
- 생활문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시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점을 마련할 필요.
- 장애 자체에만 집중함으로써 장애인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예술의 주체로 전제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확대.
- 인간의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 필요.
-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넘어 문화다양성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다양한 문화 자체가 생활문화라는 개념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음.

참고문헌

-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인천 ‘문화바람’의 경우」. 『경제와사회』 100: 335-373.
- 강윤주, 심보선. 2017. 『생활예술: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 살림출판사.
-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오월의봄
- 라도삼. 2018. 「욕망의 생활문화정책, 누구를 위한 욕망인가」.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포럼 발제문.
- 문화관광부. 2004. 『예술의 힘: 새로운 한국의 예술 정책』.
- 박승현. 2008. 「성남시의 사랑방 문화클럽 -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 164-192.
- 박신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8. 「2018년 서울문화재단 사업방향 검토(안)」
- 서울시. 「‘생활문화도시, 서울’ 발표자료」
- 이소원, 이용표. 2015.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변화경험 연구」. 『GRI연구논총』 17(3): 35-71.
- 전병태. 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2014. 「문화예술복지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용에 관한 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91-116.
- 정진욱, 정무성. 2013.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 -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349-369.
- 조광호. 2015. 『생활문화 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선영. 2018. 수원시평생학습관 웹진 [와] 166호_장소를 만드는 사람들 ④ 코코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한지연, 심경순. 2016.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296-324.
- 홍애령. 2015.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장애인 무용의 개념 및 가치 재탐색」. 『문화정책논총』 29(1): 78-102.
- TANPOPO-NO-YE FOUNDATION. 2007. 『Access Arts 2007 장애가 있는 이의 예술문화 가이드』

부록

부록 01

2019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접근성 체크리스트

1.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본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의 생활문화 사업/활동 참여 실태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경기권역 영화관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2015)과 0set프로젝트의 문화 예술공간 시설 접근성 조사 경험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생활문화지원센터와 같은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시설 접근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4. 준비물 : 체크리스트(출력), 줄자(200cm 이상), 클립보드, 펜

0. 조사자 및 대상자

	구분	내용
1	조사자 이름	
2	지역구	
3	생활문화지원센터명	
4	웹사이트 주소	※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작성

1. 시설 접근성

(0) 교통수단/주차

	점검사항	예	아니오	참고사항
1	생활문화지원센터와 가장 근접한 지하철역 명 (기입)			

1-1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엘레베이터 없 을 경우 휠체어 리프트 설치 여 부 확인(0 표시) 1. 예 1. 아니오
1-2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근처) 출구 번호 (기입)			*휠체어 리프트 설치 경우, 그 (근처) 출구 번호 작성 :
1-3	지하철역(엘레베이터 출구)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km	*출구-센터 거리 (웹지도)
1-4	※ 지하철역에서 센터까지 걸어가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접근성의 측면) 서술			
2	생활문화지원센터 근처 주차공간 유무			*장애인 주차공 간 유무(0표시) 1. 예 1. 아니오

(1) 건물 주출입구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없 음	참고사항 (기준 및 실측 내용 작성)
--	------	---	---------	----------	--------------------------------

1	건물 주출입구(로 가는 길)에 턱(계단) 높이가 제거 되어 있음 (2cm 이하)				*높이 차 있는 경우 : cm
2	건물 주출입구로 가는 접근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2-1	경사도가 있는 경우 기울기	높이 : 길이 : 기울기(높이/길이) :			*경사도기울기(비율) : 1/8(높이/길이) 이하여야 이용 가능
2-2	경사도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양쪽 손잡이가 다 설치되어 있어야 "예"
3	다른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경우 해당 출입구의 단차 제거, 경사로,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음				*다른 출입구의 예 : 후문 등
3-1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 작동 가능함				
4	건물 출입구의 유효폭이 휠체어 이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최소 90cm 이상, 권장 120cm 이상)				*폭: cm
5	건물 출입구 전면에 휠체어 이용자의 유효거리를 확보하고 있음 (가로 120cm, 세로 120cm 이상)				*유효거리: 경사도가 끝난 지점에서 출입구까지의 거리 *거리 - 가로 : cm - 세로 : cm
6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점자블록이미지 
6-1	설치된 점자블록(유도블록)이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사진첨부 (6-1.별도첨부)

6-2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서 건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사진첨부 (6-2.별도첨부)
7	※ 건물 출입구 접근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건물 앞 인도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이동시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입해주시고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내용기입	*사진첨부(7.별도첨부)			

(2) 화장실

	점검사항	예	아 니 오	해 당 없 음	참고사항 (기준 및 실측 내용 작성)
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블록(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3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4	화장실 내부(대소변칸) 출입구(통로) 유효 폭이 90cm 이상임				* 폭 : cm
5	화장실 내부(대소변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0cm 이상 깊이 180cm 이상임				* 너비 : cm * 깊이 : cm
6	대소변기의 높이가 40cm 이상, 45cm이하임				* 높이 : cm
7	화장실 출입문 형태가 적절함				*적절한 예시(0표시) 1. 자동문 1. 밖여닫이 1. 접이문 1. 미닫이 1. 내부공간 확보된 안여닫이
8	화장실 세면대가 70cm에서 90cm 사이 높이에 위치함				* 높이 : cm
9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10	※ 화장실 접근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입해주시고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내용기입	*사진첨부(10.별도첨부)			

(3) 복도 및 층간 이동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기준 및 실측 내용)
------	---	-----	-------	----------------------

				작성)
1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하기에 충분함 (120cm 이상)			* 유효 폭 : cm
2	문화예술공간이 2층이 이상 혹은 지하에 위치한 경우,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음			*설치시설 0 표시 1. 계단 1. 엘리베이터 1. 휠체어리프트 1. 경사로
2-1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	높이 : 길이 : 기울기(높이/길이) :		*경사로기울기 (비율) : 1/8(높이/길이) 이하여야 이용 가능
2-2	계단이 있는 경우 손잡이에 점자 표시 되어 있음			
2-3	휠체어리프트 있는 경우 작동 가능함			
2-4	엘리베이터 전면에 140cm×140c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가로 : cm * 세로 : cm
2-5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90cm 이상			* 폭 : cm
2-6	엘리베이터 내부 활동공간 폭 160cm 이상, 깊이 135cm 이상(최소 폭 110cm, 깊이 135cm 이상)			* 폭 : cm * 깊이 : cm
2-7	엘레베이터 내·외부 버튼이 바닥면으로부터 70-90cm 사이 높이에 위치			* 높이 : cm
2-8	엘리베이터 내·외부 버튼에 점자표지 부착			
2-9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도착층, 운행 상황 등을 표시하는 화면 및 음성신호 장치 동작			*동작 장치 0 표시 1. 도착층 표시

					화면 1. 음성신호 장치
--	--	--	--	--	------------------

(4)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

	점검사항	예	아 니 오	해 당 없 음	참고사항 (기준 및 실측 내용 작성)
1	공간 출입구에 턱(계단) 높이 차가 제거되어 있음 (2cm 이하)				*높이 차 있는 경우 : cm *그 외 상황 작성 :
2	공간 출입구의 유효폭이 휠체어 이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최소 90cm 이상, 권장 120cm 이상)				*폭: cm
3	공간 내부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단차, 계단 등) 이동 지원 인력이 제공됨				*인력의 종류 1. 직원 1. 기타:
4	※ 문화예술 공간 접근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입해주시고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내용기입	*사진첨부			

--	--	--

***조사 참여 후기**

※ 생활문화지원센터 가는 길, 시설을 체크해보면서 들었던 생각, 체크리스트에서 추가되어야 할 문항 등 의견 및 소감을 나눠주세요.

--

부록 02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 조사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활예술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의 방향성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매개자(FA)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참여자를 만난 경험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시어 설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생활예술매개자(FA)분들의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심을 기반으로 지역 거주/활동하는 장애인분들이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설문 소요시간 : 3분 이내 (20문항 이하)
- * 설문 작성기간 : 11월 30일까지
- *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설문 기간 종료 이후 일괄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 제출해주신 답변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한 인터뷰 요청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문의 : 0setproject@gmail.com

조사 기관 : 짓거리연구소 0set프로젝트

<5-1>

1. 담당 지역구 혹은 분야를 적어주세요.*

2. 이전 년도에도 생활예술매개자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연도와 담당 지역구 혹은 분야를 적어주세요.

*예시 : 2017년 성북구 FA, 2018년 동아리 FA

3. 생활예술 활동(동아리, 축제, 행사, 모임 등)에서 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관람객, 참여자 모두 포함)*

- 예
- 아니오

<5-2> 생활예술 활동 참여 장애인 관련 질문 1

1. 생활예술 활동에서 만난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휠체어 이용)
- 지체장애(목발-크러치 등 보조 장치 이용)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잘 모르겠음
- 기타

2. 장애인을 만난 생활예술 활동의 종류는 무엇이었나요? (복수 응답 가능)

- 축제
- 동아리 모임
- 네트워킹 모임
- 행사(전시, 모임 등)

○ 기타

3. 장애인의 활동 참여 형태는 어떠했나요?

*관람객과 참여자 두 참여 형태의 장애인을 다 만난 경우에는 "참여자"를 선택해주세요.

○ 관람객

- '<5-4>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서!'로 이동

○ 참여자(동아리 일원, 축제 및 행사 참여 단체 일원 등)

- '<5-3> 생활예술 활동 참여 장애인 관련 질문 2'로 이동

○ 잘 모르겠음

- '<5-4>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서!'로 이동

4. 장애인을 만난 생활예술 활동의 구체적인 명칭을 적어주세요.

*예시 : 동아리 축제 "동아리 페스타", 성북구 지역 축제 "성북진경" 등

<5-3> 생활예술 활동 참여 장애인 관련 질문 2

1. 참여 장애인이 속한 단체(기관, 동아리 등)는 무엇이었나요?

*예시 : 00구 000센터 하모니카 동아리

2. 참여 장애인이 속한 단체(기관, 동아리 등)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어주세요.(모임, 축제, 행사 등 당일에 목격한 장면을 서술해주셔도 됩니다.)

*예시 : 매주 목요일(일주일에 한 번)에 모여서 하모니카를 배우고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 축제에서 부스를 차리고 단체를 알리는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3. 장애인이 활동에 참여하는데 생활예술매개자로서 본인이 한 역할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예시 : 하모니카 동아리 강사, 동아리가 축제에서 공연할 때 이동 지원을 했음 등

<5-4>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서!

1. 장애인의 생활예술활동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 시설 접근의 어려움 : 경사로, 엘리베이터, 접근 가능한 화장실 등의 부재
- 정보 접근의 어려움 : 시/청각/문해/발달 장애인을 위한 홍보(정보) 부재
-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지원 장치의 부재 : 대안 의사소통장치-AAC, 수화/문자통역, 이동지원 등의 부재
- 장애인에 관한 인식/정보/경험 부재
-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예술지원사업의 내용
- 기타

2. 위의 원인들 중에서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을 참여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하는 부분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위의 원인들 이외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3. 생활예술매개자 활동과 별개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 예
- 아니오
- 기타

4.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었던지 서술해주세요. (기억나는 내용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 000기관에서 하는 장애인 대상 미술수업 강사를 한 적이 있다. 000축제에서 함께 공연 준비를 한 적이 있었다.

[-----]

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기타

6. 생활예술매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개설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예
- 아니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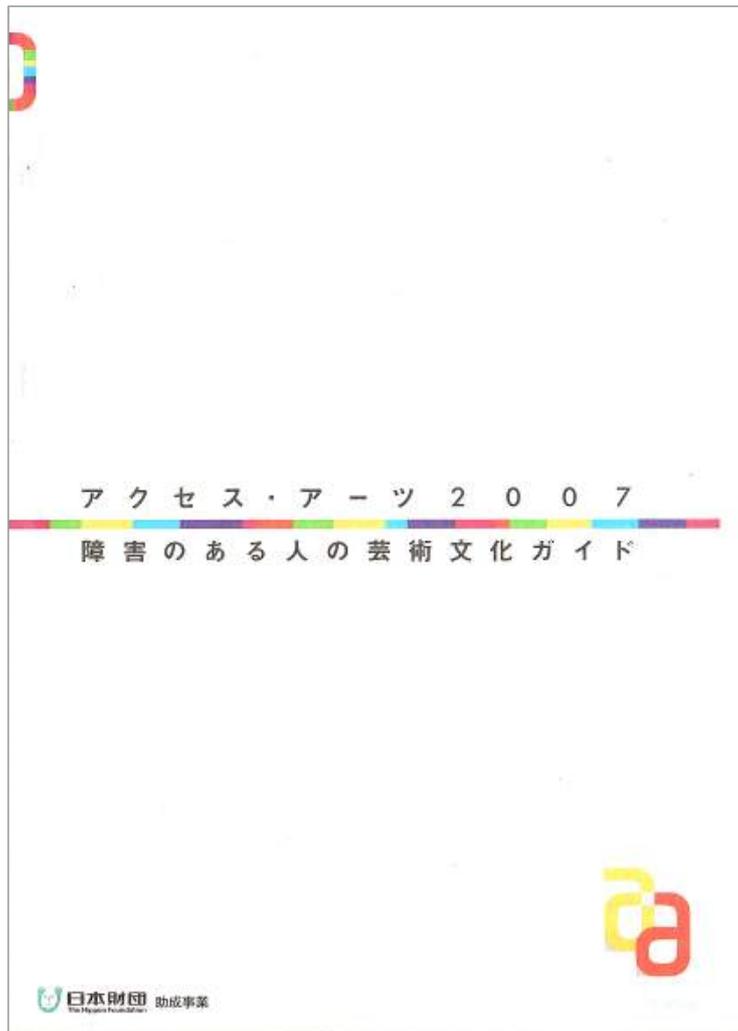
7.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예술매개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생활예술매개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적어주세요.

[-----]

부록 03

정보 접근성 관련 일본 자료



『Access Arts 2007 장애가 있는 이의 예술문화 가이드』

일본재단 조성사업/재단법인 탄포포노이에[민들레의집]

©2007 TANPOPO-NO-YE FOUNDATION

[3쪽] 마이너리티는 수의 문제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 문제시되는 것은 마이너리티의 문화가 놓인 사회,
그 사회의 문화이다.

[5쪽] 지금 장애가 있는 이들을 둘러싼 사회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가 있는 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가의 기회가 되는,
예술활동이 세계적으로 드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은, 장애가 있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여, 커뮤니티
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러나 이들 활동의 현황은 아직 사회적 의의, 사회적 역할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가 있는 이, 그리고 장애가
있는 이의 예술 활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과 단체를 위한 안내가
되도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처럼 분류했습니다.

차례

1. 아트센터 아트 스페이스 갤러리
2. 미술 감상
3. 미술관 공공시설
4. 퍼포밍 아트
5. 무대·영화 감상
6. 홀
7. 네트워크 프로듀스

*이상은 2007년 1월 현재까지 정보입니다.

이 책에 실린 활동은, 복지시설이 바탕이 된 활동, NPO와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활동, 공적 단체에 의한 새로운 시도 등, 각각 배경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기
에 공통된 것은, 기존의 복지와 예술문화, 교육이라는 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니즈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고, 사회 역시 더 낮게 변화하고자 하는 사유
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이가 예술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

의 참가를 이끌어, 새로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훨씬 더 많이 있으며, 모든 정보를 심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알게 된 이들의 활동이 더더욱 매력을 띠게 되고, 또한 각지에서 새로운 활동이 생겨나가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일본재단의 지원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 사전 앙케트와 집필, 게재 확인에 있어 많은 시설과 기관과 개인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탄포포노이에

[10쪽] 코코룸

최후의 인간의 일이란, 모두가 공생하는 것.

접근 가능함의 중요성 - 내 직장은 다양한 사람이 오기 편한 곳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신세계 페스티벌 게이트'. 청룡열차 장식 이 휘감긴 이 건물에서 석양이 아름답게 비치는 4층에 코코룸이 있다. 약 60평 공간에는 카페, 작은 무대, 사무실, 주방이 있으며, 상근자 여섯 명이 연중무휴로 이 공간을 운영한다.

'낮잠(수건 포함) 300엔' 가게가 유명할 정도로 점심때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다. 밤에는 행사가 있을 경우 손님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조용하다. 이 건물에서 음식점이 문을 닫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코코룸을 운영하는 주체는 NPO법인코에토코토바토코코로노헤야[목소리와 말과 마음의 방]. 분야로 따지자면 예술NPO다. 임의단체로 시작해 만 4년이 되었다. 예술이라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힘든 활동을 NPO법인으로서 해나갈 때 우리는 '열림'이라는 선택을 했다.

카페라는 형식을 띤 것도 연중무휴라는 발걸음하기 쉬운(일하는 측에서는 힘든) 설정을 한 것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이 공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예술가들뿐 아니라 홈리스와 장애가 있는 사람, 활동가, 헬퍼, 돌봄노동자, 백수, 실업 상태인 중년과 고령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 무얼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 젊은이 등 다양한 이들이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로움과 가능성 - 표현함으로써 다져지는 자율성

장애를 가진 이들과 자주 접하게 된 것은 이곳에 와서부터다. 역에서 가깝고 베리어프리이며 손님이 적은 카페는, 헬퍼분이 알려줘서 산책 중간에 들르는 휴게소가 되었다. 그러다 연말에 월세 후원 파티가 열렸다. 코코룸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로 북적였다. 웅웅거리는 가라오케, 알아듣기 힘든 말, 그 사이, 신기한 움직임. 그것은 어떤 무대작품보다 강력해 보였다.

새해가 밝고나서 일찍이 극단 제작을 하던 헬퍼분과 함께, 주로 지체장애가 있는 이들과 무대작품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홈리스분들도 함께 그들이 사용하기 쉬운 악기를 만들고, 노래하거나 시를 짓거나 낭독을 했다. 작품으로 공을 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의 호흡이 함께갈 수 있는 생생한 무대를 만들고자 했다. 아와지시마에서의 발표, 오사카와 도쿄에서의 공연 등을 수행하면서 관객과 관련자들의 역량을 강화해가는 그들의 활약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이 활동을 통해 배운 바가 무척 많다. 장애가 있는 이들이 무대에서 선보인 자율적 정신의 반짝임, 살아있음의 존엄함.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 그들 자신도, 우리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 일이란 당장 많은 수입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시사할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

(上田假奈代/NPO법인 코에토코토바토코코로노에야 대표이사)

<http://cocoroom.org>

特定非営利活動法人 こえとことばとこころの部屋 (ココルーム)